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N EFFECTIVE STRATEGY FOR CHURCH REVITALIZATION THROUGH INTERCESSION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ONGDUK CHURCH**

written by

**SUNG SOON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Young Shin Kim

---

Ah Young Kim

---

Seyoon Kim

March 1, 2007

AN EFFECTIVE STRATEGY FOR CHURCH  
REVITALIZATION THROUGH INTERCESSION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ONGDUK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SUNG SOON PARK

MARCH 2007

중보기도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봉덕 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임 경 철 교수

박 성 순

2007년 3월

##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Church Revitalization through Intercession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ongduk Church

Sung Soon Park

Doctor of Ministry

200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explores the importance and function of intercession prayer and ministry in relation to church growth. Intercession prayer is at the core of church ministry as well as personal faith. Bongduk Church has been growing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rough the ministry of intercession. This final project deals with theoretical, analy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Bongduk Church's intercession ministry. This Paper is mainly composed of four parts.

As a first part, Chapter 2 sketches basic understanding of intercession ministry: the meaning, biblical basis, theological foundation, and practice of intercession ministry. In addition to this basic research, one of the main foci of this chapter is the people who are involved in the intercession ministry.

Second, Chapter 3 is an in-depth exploration about the intercession ministry. The main topic of this chapter is the importance of intermediate ministry in a local church. The importance of intercession ministry includes the priority according to the Bible and its privilege and obligation in that ministry. more specifically, there are three types of intercession: Jesus, the Holy Spirit, and the Christians.

Third, as the transition of this project, a brief introduction about Bongduk Church is addressed in several categories: geographical setting, religious distribution of Daegu, history of church growth, and ministerial vision and orientation. This short research and analysis is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intercession ministry of Bonduck Church.

Fourth, Chapter 5 delineates the main intercession ministry of Bongduck Church. Intercession ministry is the main strategy and method for equipping church members with maturity and evangelism in Bongduck Church. Based on the practice and experience of intercession ministry, several concrete methods in terms of intercession ministry are addressed in this section.

In sum, intercession ministry is crucial for church growth and evangelism in a local church. Church does exist not for self satisfaction but for intercession. This intermediate ministry is the key for healthy church and her growth.

Theological Mentors: Young Shin Kim, Ph. D.

Ah Young Kim, Ph. D.

Seyoon Kim, Ph. D.

## 감사의 글

먼저 부족한 종을 목회자로 부르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풀려 신학교의 귀한 교수님들의 강의와 지도들 통해 신학과 목회의 균형을 배우며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교 발전을 위해 늘 기도로 힘쓰시고, 세계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김세운 박사님께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배려해 주신 봉덕교회 당회원과 성도님들의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논문을 성심으로 지도해주신 김영신 교수님, 세밀한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석 목사님,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논문자료정리와 타이핑에 특별히 힘써 주신 송병준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역 리서치들 위한 자료들 제공해 주신 도시들 위한 중보기도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묵묵히 기도로 헌신해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커 가고 있는 딸 희진이와 유경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먼 훗날 아빠가 목회자인 것을 자랑으로 여길 것으로 기대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007년 3월 박성순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제 2 장 중보기도에 대한 이해 .....	4
제 1 절 중보기도의 정의 .....	4
제 2 절 중보기도의 성경적 근거 .....	9
1. 구약 .....	9
2. 신약 .....	12
제 3 절 중보기도의 실제 .....	15
1. 중보자의 자격과 마음 .....	15
2. 중보기도자의 위치와 영역 .....	17
3.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	21
제 3 장 중보기도의 중요성 .....	27
제 1 절 중보기도의 우선성 .....	28
1. 신학적인 우선성 .....	28
2. 사역적인 우선성 .....	29
제 2 절 중보기도의 유형 .....	33
1. 예수님의 중보기도 .....	33
2. 성령님의 중보기도 .....	36
3. 신자들의 중보기도 .....	37
제 3 절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	40
1. 중보기도의 특권 .....	40
2. 지역교회 최대의 사명 .....	42
3. 영적 전쟁을 위한 필수 .....	43

4. 중보기도의 의무 .....	45
제 4 절 지역교회 연합을 위한 중보기도 .....	46
1. 연합의 필요성 .....	47
2. 연합의 방법 .....	49
3. 지역전체의 변화와 지역교회의 성장 .....	50
제 4 장 봉덕교회가 위치한 지역상황 .....	52
제 1 절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 .....	52
1. 교회가 위치한 남구의 현황 .....	52
2. 지역주민들의 종교성 .....	54
3. 영적 도해 및 영적 전쟁 .....	57
제 2 절 봉덕교회의 성장 역사 .....	70
1. 교회 연혁 및 현황 .....	70
2. 교회의 목회방향 .....	71
3. 교회의 성장 역사 .....	77
제 5 장 봉덕교회의 중보기도 사역 .....	79
제 1 절 중보기도에 관한 실제 .....	79
1. 중보기도 프로그램의 현황 .....	79
2. 중보기도 훈련 방법 .....	82
3. 중보기도를 통한 변화 .....	83
4. 중보기도를 통한 활성화 방향 .....	84
제 2 절 중보기도 사역팀 운영에 대한 제언 .....	86
1. 사역팀 운영의 유의 .....	86
2. 사역팀 조직에 대한 제언 .....	87
3. 중보기도 사역의 절차 .....	89
4. 중보기도 사역의 유형 .....	91



제 6 장 결 론 .....	96
부 록 .....	97
참고문헌 .....	100
Vita .....	105

## 표 목 차

<표 1> 봉덕교회의 조직표 .....	76
<표 2> 화요 중보기도모임 팀별 기도방향 .....	80
<표 3> 10기 릴레이 중보기도 헌신자 명단 .....	81
<표 4> 개인 기도에 대한 응답 .....	82
<표 5> 중보기도실에서 한 시간 사용법 .....	90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목회들 하면서 교회들 부흥시키려는 생각은 목회자로서 누구나 갖는 과제이다. 이런 과제들 가지고 봉덕교회들 섬긴 지도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그 동안 많은 새가족들이 들어와 교회에 정착을 하고 이사 온 교인들의 등록도 많았지만 노인들의 사망이나 먼 곳으로 이사하는 교인들의 교회 이동으로 인한 자연 감소를 감안한다면 괄목할 만한 성장은 가져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교회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교회가 위치한 대구라는 도시 자체의 복음화 비율이 10퍼센트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sup>1)</sup>이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것도 다행이라고 자위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라면 어떠한 조건에서라도 분명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교회들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고 있고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전도세미나, 내적치유, 부흥집회, 선교집회, 릴레이 기도, 특별새벽 집회 등 다양하게 시도들 해보았다. 그 결과 나름대로의 질적 성장은 있었지만 양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것은 비단 봉덕교회 만의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중보기도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

1) 통계청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2005년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총인구는 2,456,016명인데 이 가운데 기독교인은 255,593명으로 수치상으로는 10.4퍼센트이지만 통계청 자료에는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성공회, 통일교, 영생교, 천부교, 영주교 등도 기독교에 포함되어있어서 실제 기독교인은 10퍼센트 미만으로 본다.

물론 그동안 중보기도를 몰랐던 것도 아니다. 교회 안에서 지역이나 나라를 위한 많은 중보기도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중이다. 하지만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대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중보기도를 위해 지역의 영적 도해들 조사해 보고 복음적 입장에서 필요한 면을 수용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교회의 연합에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연구하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높이고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봉덕교회가 위치한 대구 지역에 대한 역사와 더불어 현재의 영적인 진단을 바로 해서 효과적으로 봉덕교회에 중보기도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교회에 도움을 주어 중보기도 사역에 함께 연합해 감으로 지역 교회 전체의 부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의의로 삼는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중보기도와 관련된 기존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였으나 기존의 문헌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인 면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을 진단하고 분석하는데 더 비중을 두었다.

2장에서는 중보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성경적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고 중보기도자의 자격과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중보기도라는 부분을 다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살필 것이다. 이론적인 부분, 즉 신학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 다시 말해 목회사역적인 부분에서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우선성에 대해 살펴보고 중보기도자의 자세를 보기 위한 전제로 성경에 기초한 다양한 중보기도의 모범에 대해 살필 것이다. 또한 지역교회가 실제적으로 연합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변화들을 꾀하는 데 있어서 중보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이다.

4장에서는 봉덕교회가 위치한 대구 지역과 남구 지역의 상황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일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영적 도해들 할 것이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영적 전쟁이나 영적 도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제론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본 논문에서 취하고자 하는 입장을 정리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이것은 기존에 연구 분석되어진 자료들 참고로 하였다. 실제로 영적 도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평가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영적 도해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수납하여 지역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설립되어 계속되어온 본 교회의 역사와 목회 방향에 대해 지역이라는 큰 그림과 더불어 언급할 것이다.

5장에서는 현재 봉덕교회에서 실시중인 중보기도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한 본 교회의 사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자 한다. 또한 필자의 입장에서 사역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통한 목회 사역과 지역교회 연합에 있어 중보기도의 역할을 진단해보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봉덕교회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사역에 있어 중보기도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자 하는 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제 2 장

### 중보기도에 대한 이해

중보기도는 교회적으로 중요하고 목회사역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중보기도라는 말은 이해에 있어서 적잖은 오해와 이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2002년 기독교신문에는 총회 신학부에서 전국의 교회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용어 사용 중지 촉구”라는 제하에 “성총회의 결의와 정신에 따라 총회 산하 각 지 교회에서는 즉시 ‘중보기도’란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합심기도’(마 18:19), ‘도교의 기도’(딤펴전 2:11), ‘이웃을 위한 기도’(살전 5:25), ‘청원기도’(골 4:3) 등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고<sup>2)</sup>를 내기도 하였다.

우선 제한을 둘 것은 중보의 개념에 있어서 결코 우리 주 예수님의 자리들 대신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밝힌다. 이곳에서 말하는 중보의 개념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분의 작은 동역자라는 의미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복음주의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보편적으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사용하고 있으며<sup>3)</sup> 본 논문에서도 그와 동일한 의미임을 먼저 밝힌다.

#### 제 1 절 중보기도의 정의

우리는 자주 ‘중보’를 ‘기도’와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대화에서는

2) “중보기도 사용 중지 촉구.” 기독교신문, 2002년 6월 10일자. Online: <http://www.kidok.co.kr/>

3) 이동원, *세상을 끌어안은 중보기도 파티* (서울: 두란노, 2005), 13.

문제가 없지만 기술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구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보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중보는 기도이지만, 모든 기도가 다 중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sup>4)</sup>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 나들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며, 중보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다. 개인이나 혹은 단체, 한 국가이거나 한 도시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나들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sup>5)</sup>

중보기도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중보기도란 'intercessory prayer'이다. 이때 'intercessory'란 말의 의미는 '중보', '중재'이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란 다른 환경과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 중보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자비들 얻어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간구하는 행위이다.<sup>6)</sup>

그 어원적 의미들 살펴보면 '무엇과 무엇의 사이'를 의미하는 라틴어 인터(inter)와 '어딘가로 나아간다.'는 뜻을 지닌 체레테(cerere)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중보라는 라틴어가 지니는 뜻은 '들 사이에 서서 나아간다.'는 것이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은 이러한 중보의 의미들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들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교로"(겔 22:30).

그리고 '중보자'라는 헬라어는 '메시테스(μεσιτης)'로서 '멕시코' 즉 '한 복판에 있다.'는 의미들 가진 단어와 밀접한 관계들 가지고 있다. '메시테스'는 중재라라는 의미 외에 중매자 혹은 전권대사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서약이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중재자들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sup>7)</sup> 또한 헬라어 '엔투그카노(ἐντυχάω)'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중재한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롬 8:26-27, 34; 딤후전 2:1).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타나는 '엔투키스(ἐντευσικς)'라는 '엔투그카노'의 명사형으로 기록된 단어는 단순히 중재라는 의미 외에 '식

4) 안길순, "중보기도 사역과 교회 성장" (M-div, 호남신학대학원, 1998), 39.

5) 홍성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서울: 예수전도단, 2000), 108.

6) 전용복, *생명력있는 기도: 중보기도* (서울: 두란노, 2000), 28.

7) 최기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서울: 성운, 1971), 78-79.

사들 위한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중재하다',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8)</sup>

그리고 '도교하다', '중보하다'의 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파가(*וּפַג*)'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떠오르다'였으나, 이 후에 '청원하다, 추궁하다'란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sup>9)</sup>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와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사 53:12)

에서 '끓어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샤'인데 이 말은 '멀리 옮기다', '먼 곳으로 치워버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sup>10)</sup>

이러한 정의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중보기도를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중보들 '타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때 '타인'의 의미들 단순히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까지도 포함해서 '타물(他物)'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로 해석한다.<sup>11)</sup> 이러한 정의는 중보기도의 시야를 넓혀 준다.

바운즈(E. M. Bounds)는 성경 전체를 기도라는 단일 주제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다. 그는 욥기에 나타난 욥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에서 새로운 이해를 하고 있다. 욥과 대화하며 여러 가지 변론을 펼치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 자의로 찾아와서 욥과 변론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운즈는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논쟁하는 친구들을 보내셨다고 이해하고 있다.<sup>12)</sup> 그는 같은 책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8) 이정현, *중보기도* (서울: 베드로서원, 1998), 13-14.

9) Dutch Sheets,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김주성 역 (서울: 베다니, 1999), 72-73.

10) 이진,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시행방안" (석사학위논문, 목원대 신학대학원, 2002), 10.

11) 정규남, *Prayer in the Psalms* (Ph. D. di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42.



머물렀던 일에 대해서도 중보기도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해를 하고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동안을 기도에 매달릴 정도로 그 백성들을 사랑했으며, 그로 인해서 몸이 쇠해지는 것도 몰랐고 심지어는 식욕조차도 느끼지 못했다고 바운즈는 기록하고 있다.<sup>13)</sup>

그는 중보기도라는 개념이 최근에 와서야 생긴 신약과 교회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성경적인 지지가 있었고, 특별히 중보기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세움 받은 자들은 다른 일반백성들로부터 중보기도자로 세움 받은 사실에 대해 알고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들을 비롯한 다른 자들까지도 악에서 구원해 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중보기도자들 찾아와서 자신의 평안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중보기도자들은 이들의 기도제목을 수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주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의 기도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주셨다. 중보기도자로 세움 받은 자가 올바른 기도들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부분을 다 쏟아 부어 기도해야 했다. 생명과 마음과 정신을 쏟아서 기도해야 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전인적 요소가 다 중보기도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중보기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이다.<sup>14)</sup> 그래서 중보기도는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중보기도자 당사자에게도 좋은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Renovare'라는 단체를 설립해 교회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영적훈련과 성장', '돈, 섹스, 권력' 등의 책을 저술하기도 한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그의 책 *기도*에서 중보기도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면에 들어가 변화시키므로 변화들 일으키

12) E. M. Bounds. *기도 I* (*E. M. Bounds on Prayer I*), 김원주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212.

13) E. M. Bounds. *기도 I* (*E. M. Bounds on Prayer I*), 김원주 역 215.

14) E. M. Bounds. *기도 II* (*E. M. Bounds on prayer II*), 김원주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529-530.

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친밀한 교제들 이루어 되고 그 결과 병자들 치유하며 상처받은 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세상을 위해 증보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sup>15)</sup>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증보기도의 모형을 찾아낸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눅 11:5-8, 한글개역<sup>16)</sup>).

그가 말하는 증보기도의 여섯 가지 요소는 시급한 요구, 자발적인 사랑, 무력감, 기도에 대한 믿음, 끈질긴 강청의 효과성, 풍성한 상급의 확실성이다.<sup>17)</sup> 누가복음에서 소개된 이 비유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밤늦은 시간 친구 집을 찾아가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장면이 소개된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배고파서가 아니라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자신의 이웃을 찾아가 간청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증보기도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진정한 배고픔은 영적인 굶주림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됨으로 영적인 갈함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적인 주림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의 영혼을 위해 증보해야 할 것이다.

15) Richard Foster, *기도 (Prayer: Finding the Heart's True Home)*, 송준인 역 (서울: 두란노, 1995), 341.

16) 이하의 모든 성경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개역성경을 따른다.

17) Murray, *그리스도의 기도학교: Andrew Murray 기도를 본*, 202-208.

## 제 2 절 중보기도의 성경적 근거

성경을 살펴보면 중보기도에 관한 많은 사건들과 중보기도를 시행한 인물들의 사례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중보기도를 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성경에서 중보기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려 한다.

### 1. 구약

#### 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살펴보면 구약시대에서부터 중보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중보기도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성경에 나타난 중보기도 가운데 그 어떤 중보기도보다 길고 뛰어난 기도로 나타난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처음 중보기도를 드린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무작정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간다. 수없이 많은 시간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귄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관영한 범죄로 인해 그 곳을 멸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sup>18)</sup> 이 일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였다. 아브라함은 의인 오십 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였고, 의인 사십오 인, 사십 인, 삼십 인, 이십 인, 십 인까지 점점 적은 숫자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최악의 도성에서 같이 멸망 받았을 롯과 그의 가족은 살

18) 강준민, *강령기도의 능력* (서울: 두란노, 2002), 38-40.

아날 수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기도로 조카 롯의 생명은 연장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나.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는 훌륭한 중보기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모세의 일생 가운데 중보기도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모세가 한 중보기도였다. 출애굽기 17장 8-13절에 나오는 르비딤 전투 기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들 이끌고 곧짜기로 내려가서 싸우라고 명령한 후에 아론과 혼을 데리고 전장이 내려다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리고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다.<sup>19)</sup> 그렇게 기도한 결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 전쟁은 군사력의 우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또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 모세에게는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감동적인 중보기도를 드렸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sup>20)</sup> 모세의 중보기도는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제목을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용서를 청할 수 있었다.

#### 다. 사무엘의 중보기도

사무엘의 경우도 놀라운 중보기도자였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온 백성이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에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19) Foster, *기도*, 266.

20) Andrew Murray,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 (The Believer's Daily Renewal)*, 박이경 역 (서울: 아가페, 2004), 27-29.

에게 “당신은 우리들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삼상 7:8)라고 말한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같은 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블레셋 족속을 어지럽게 하니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sup>21)</sup> 사무엘도 모세처럼 중보자의 심령을 표현하기를 “나는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들 가르칠 것인즉”(삼상 23:12)이라고 말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자는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다. 예레미야 15 장에서는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 치라”(렘 15:1).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보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체적 작정을 의도적으로 변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최상급 중보기도 사역자라는 사실이다.<sup>22)</sup> 하지만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가 주장하는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구체적 작정을 의도적으로 변개시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에서 국한 된다고 본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 섭리와 허용적 섭리로 나눌 수 있다.<sup>23)</sup>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문제를 변화시키지만,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을 바꾸어놓지는 못한다.<sup>24)</sup> 이러한 신학적 지식의 습득보다 더 큰 유익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변화되어 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과의 공개적인 대결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온 나라의 영적인 우열을

21) C. Peter Wagner, *방패기도 (Prayer Shield)*, 명성훈 역 (서울: 나눔터, 1994), 32.

22) Ibid.

23)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2 교의신학 신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425-432.

24) Charles Capps,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 (Releasing the Ability of God through Prayer)*, 최기운 역 (서울: 베다니, 1998), 47-48.

바꾸어 놓았던 엘리야의 경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를 붙들고 당시 세계 최고의 실력자였던 왕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경우도 구약에 나타난 중보기도자의 예로 볼 수 있다.<sup>25)</sup>

## 2. 신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다 하시더라"라고 기도하셨다. 모든 가운데서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중보하신 모습이 중보의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약성경 가운데 많은 중보기도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다. 그는 신약성경에서 늘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위하여, 나라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제3장 중보기도의 중요성' 이라는 제하에 '제2절 중보기도의 유형'이라는 항목에서 살펴볼 것이고 여기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중보기도를 한 대표적인 바울과 스테반, 초대교회의 중보기도 내용을 살펴 볼 것이다.

### 가. 바울의 중보기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이후부터 늘 뜨거운 기도의 삶을 살았다. 그의 기도는 각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한 기도였고, 이 기도들 통해서 성도들과 바울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 견고해졌다. 바울은 밤낮으로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그렇게 많은 중보기도를 한 결과 그는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체험은 하나님의 비밀들 즉 영적인 깊은 지식을 깨닫고 삼층천(三層天)까지 경험하게 되었다(고후 12:2). 그에게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 바울의 물건을 가지고 악귀 들린 자에게 가져다 대면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갔다대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능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행

25) Charles H. Kraft.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Behind Enemy Lines)*. 장미숙 역 (서울: 은성, 1995), 182-184.

19:12). 그리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배를 타고 행선하는 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바울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로 통하여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었다(행 27:12-25).

신약에 나타난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첫째,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늘 부탁하였다.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중보의 기도들 늘 부탁하였다. 특별히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부탁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곧고루 나타난다. 이것은 바울 사역에 있어 개인적인 중보기도의 부탁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sup>27)</sup>

둘째로, 데살로니가전서의 서두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 뿐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기도했다.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데서 온전에 이르기를 기도했다.

셋째로, 바울은 교회들 위하여 늘 기도하였다. 교회 안의 지체로서 사랑과 서로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했다.

넷째로,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디모데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밤낮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 가운데 늘 디모데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었고 그 기도는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다섯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바울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큰 근심과 고통으로 중보기도하였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허락되기를 바랐던 로마서 9장의 기도는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에 막아서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생명 걸고 중보 했던 모세의 중보와 같은 마음이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

26) 김지현,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제안" (M-div. 목원대 신학대학원, 2005), 28-30.

27) 그의 서신 가운데 개인적인 중보기도 요청이 나와 있는 곳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로마서 15장 30-32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9절, 빌레몬서 1장 22절 등이다.

신의 민족과 이방 민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한 중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스테반의 중보기도(사도행전 7장)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때 각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스테반과 더불어 변론하였으나 스테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감당치 못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사람들을 사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죄목으로 스테반을 공회에 잡아오게 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종교적 이기심 때문에 격분하여 스테반을 몰로 쳐 죽이고 만다.

격노한 폭도들이 스테반을 몰로 칠 때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들 저들에게 몰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다. 스테반의 기도는 짧고 단순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스테반이 순순히 내놓은 자신의 생명만큼의 소중한 무게가 들어 있다. 스테반은 억울하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면서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 것이다.<sup>28)</sup>

#### 다. 초대교회의 중보기도(사도행전 12장)

헤롯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들 칼로 죽이고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전격 체포한다. 헤롯이 이처럼 여론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 자신이 히브리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조상이었던 헤롯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나 평생을 항상 반란의 두려움이 쌓여 지냈다. 예수님 출생 당시 그토록 가혹하게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 이유도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다. 결국 그는 왕위들 이어받을 자기의 장남과 가족들을 살해하는 파국까지 치닫게 된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의 직계 자손이다.<sup>29)</sup> 그 역시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데 항상 마음을 두고 있던 터라 야고보들 죽인 뒤 일어난 백성들의 환호는 헤롯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런 흐름에서 베드로를 잡고 처형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28) 김강필, "실천적 의미에서 본 중보기도"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 신학대학원, 2001), 14.

29) Donald Guthrie, *사도들(The Apostles)*, 이상원 역 (서울: 아가페, 1991), 113-115.



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 보인다. 초대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헤롯왕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말하자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졌다. 하나님의 사자가 떠들 떠고, 신을 들메고, 겹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말대로 따라가는 베드로는 환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다. 큰 길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갔을 때에야 주변을 둘러보고서는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였다. 모두가 잠든 밤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아직까지 잠들지 않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베드로의 출옥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을 때, 베드로의 출옥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출옥해서 문 앞에 있다는 계집종의 말을 도무지 믿지 않고 모두 의심을 품고 있었다.

열심히 중보기도 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중보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sup>30)</sup>

### 제 3 절 중보기도의 실제

#### 1. 중보자의 자격과 마음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며, 누가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가? 중보기도자는 이사야 59장 15-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찾고 있는 사람이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들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sup>31)</sup> 그러

30) 김강철, "실천적 의미에서 본 중보기도", 15.

므로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즉,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데, 그 중보기도자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됨에서 시작된다. 중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원리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용서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긍휼하심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sup>32)</sup>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연약함이 없는 자들이 아니다. 때로는 약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이와 같이 중보기도자도 비록 연약하고 형편없는 상태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분이 원하는 기도제목을 붙들 때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다.<sup>33)</sup>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한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성전을 일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보여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성전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목적은 바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sup>34)</sup> 즉 중보기도자로 부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 했을 때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이렇게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보고만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자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의롭지 않은 자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며

31) 전용복, *생명력있는 기도: 중보기도*, 29.

32) Ibid., 29-30.

33) Ibid., 32.

34) 홍성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09-110.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중보기도자는 경계하는 자이다. 구약에서 파수꾼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신약에서 ‘경계’의 의미들 가진 두 단어는 그레고레우오(γρηγορέω)와 아그뤼프네오(ἀγρυπνέω)이다. 두 단어는 모두 기본적으로 깨어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초가 잠을 자지 않고 임무를 감당해야 하듯이 깨어있으라는 의미이다.<sup>35)</sup> 이렇게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영적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경계하는 것이다.

중보기도자는 사단에게 위협적인 대상이다. 왜냐하면 사단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 놓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중보기도자에게 있고 이런 권세를 사용해서 중보기도 할 때 사단의 계획과 공격들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sup>36)</sup>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꺾히리라”(약 4:7).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 시고”(마 16:19).

중보자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보기도 사역은 특정인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어서 중보기도자를 줄이려고 간교하게 노력한다.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하듯,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의 사역이며, 이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계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sup>37)</sup>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 자격조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 중보기도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다.

## 2. 중보기도자의 위치와 영역

중보기도자에게는 특별히 서야할 구별된 위치가 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35) Sheets.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317-318.

36) Ibid., 201-202.

37) Joy Dowson. *스릴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Intercession, Thrilling and Fulfilling)*, 김세라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0), 23.

### 가. 결렬된 곳

첫 번째로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할 곳은 ‘결렬된 곳’이다.<sup>38)</sup> 우상숭배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들 인도할 신을 우리들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들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들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들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 지라(출 32:1-4)

이때 모세가 서 있던 자리가 결렬된 곳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들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시 106:23).

모세들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결렬되어서 둘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결렬된 틈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였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중보대상자 사이에 서 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보자가 하나님 앞을 막아서거나 보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중보대상자 사이의 ‘결렬된 곳’에 서 있을 수 있다.<sup>39)</sup>

그뿐 아니라 중보자는 하나님과 중보의 대상 사이에 서서, 중보대상자나 장소 혹은

38) 홍성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34-135.

39) Dean Sherman, *영적 전쟁(Spiritual warfare)*, 이상신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94), 200.

은 상황들을 위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나 보호, 인도하심, 축복 등을 구체적으로 청하는 것이다. 실제로 심판받아야 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서 있기 때문이다.<sup>40)</sup>

중보기도자가 하나님과 중보기도 대상자 사이의 결렬된 틈 사이에 선다는 것은 사단과 중보대상자 사이에 서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중보기도 대상자 사이에 결렬된 틈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틈이 생긴 것이고, 이제 중보기도 대상자는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주인의 자리들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하는 사역은 중보기도자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들 점유하고 있는 사단을 내어쫓는 것이고, 동시에 그 자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초청하는 것이다.<sup>41)</sup>

#### 나. 높은 곳

두 번째로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높은 곳’이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들이 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사 62:6-9).

앞에 언급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6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보기도자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일차적으로 두 가지들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나는 도둑과 동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침략자로부터 도시들 보호하는 것이다. 농작물을 지키는 자들은 주위를 넓게 감시하기 위해서

40) Dean Sherman, *영적 전쟁*, 200.

41) 김강필, "실천적 의미에서 본 중보기도," 20.

주로 바위나 건물 또는 담 위에 배치되었다.<sup>42)</sup> 또 하나는 도시 주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벽 위에 배치되어서, 공격을 감행해오는 적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숫군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들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숫군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사 21:6-8).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기를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숫군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교 행하심이로다(렘 51:12).

파수꾼이 높은 성벽위에 배치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성벽이 높기 때문에 성벽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멀리 볼 수 있고, 또한 성벽 아래 사람들이 보기 전에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수꾼처럼 중보기도자가 성벽 위에 있다는 것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 높은 성벽 위에 두시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시야가 넓어져서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저 보게 되는 것이다.<sup>43)</sup>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교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와 중보기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삼으셨다.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역사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린양의 신부인 교회, 즉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다.<sup>44)</sup>

42) Sheets,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319.

43) 홍성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44.

44) Ibid., 147.

### 3.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중보기도자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과 멸망을 목전에 둔 그의 백성 사이에서 생명을 걸고 중재하는 자인 동시에 중보기도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 우리의 원수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동시에 영적 전쟁의 첩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온통 영적 전쟁에 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성경에서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4, 21, 22장만 빼면 성경 전체가 영적 전쟁에 대한 기록이다.<sup>45)</sup> 성경에서 사탄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봤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이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전쟁, 신약에 기록된 ‘이미와 아직’의 모든 갈등과 투쟁이 곧 사탄과의 영적 전쟁으로 직결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적 전쟁은 단순히 마귀를 쫓는 그 이상의 것이다.

모든 영적 전쟁은 한 가지에 대한 싸움이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싸움이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인간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짓 진리로 우리들 현혹한다. 이것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두려움을 심어주어 온전한 신뢰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왜곡한다. Shinness는 그녀의 책 *하늘을 여는 기도 (Unlocking the Heavens)*에서 실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왜곡된 진리에 속아 가난의 악순환에 고통하고 있던 현지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삶이 회복되게 한 경험담을 나누는 데 한 장을 할애하였다.<sup>46)</sup>

또한 이 거짓의 영은 정죄하여 분열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리에 대한 관심과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포기하게 하고 쾌락의 동반자가 되기를 부추기는 것이다.<sup>47)</sup> 이러한 영적인 흐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영적 전쟁의 개념조차 없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개념이 없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나가는 것이다. 마치 적장 끝리앗 앞에 두려

45) 구자원, *대적을 바로 알자* (서울: 은혜, 1999), 417.

46) Ruth Shinness, *하늘을 여는 기도 (Unlocking the Heavens)*, 강성덕 역 (서울: 말씀과 만남, 2001), 111-117.

47) Elizabeth Avles, Tommi Femrite, Karen Kaufman, *12가지 유형으로 본 전략적 중보기도자 (Intercessor)*, 전용복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163-172.

워하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처럼 말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믿지 않는 자, 진리가 왜곡되어 오해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자들의 마음에서 그 베일을 벗겨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에서는 이 베일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견고한 진들(strongholds)에 대해 말하고 있다. 중보기도란 이러한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견고한 진들은 악한 영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한다.<sup>48)</sup> 이들이 왜 베일에 덮여있을까? 그것은 복음의 빛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베일을 벗기 위해서는 계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회개란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획득된 새로운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도 그러하듯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와 준비가 필수적이다. 군에서도 훈련 중에 흔히 들을 수 있는 구호가 '훈련 중 훈련 맘 한 방울은 실전에서 의 꾀 한 방울이다.'라는 것이다. 영적 전쟁에도 이 원리는 통한다. 준비가 치밀할수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가까워질 것이다.

영적 전쟁을 위한 자료조사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첫째로 역사적 조사이다. 여기에는 그 도시와 관련된 일반역사와 종교적 역사가 포함된다. 종교적 역사에는 기독교의 역사와 비기독교 종교의 역사를 봐야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둘째로 물리적 조사이다. 도시 발달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셋째로 영적인 조사다. 영적인 부분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조사들 해야 한다.<sup>49)</sup>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라는 책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위한 자료조사 리스트를 참고해보자면 '역사적 조사'에 있어 그 도시를 세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이 도시를 세울 때의 의도한 바가 무엇이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또한 그 도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져야 하고 시대들 지나 오면서 도시의 이름에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된 과정과 혹 그 과정에 있어서 원래 이

48) Sheets,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217.

49) 이광임,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 (서울: 예수전도단, 2004), 164-167.



틈에는 없는 의미가 추가되거나 있던 의미 중 탈락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요한다.

도시가 세워진 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이 도시가 나라와 국민 전체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역사들 통해 유명한 지도자가 이 도시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 도시에 대해 제시한 비전, 정부나 혹은 이 도시의 정치적 지도력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야 한다. 기근, 공황, 기술, 산업, 자연자원 발견 등 이 도시의 경제적 삶에 중요하거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나 이 도시의 지도자들이 어떤 조약(협약)을 깨뜨렸는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또한 이 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전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도시에서 벌어진 전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도시가 가난한 자나 놀림 받는 자들 어떻게 취급했는가? 이 도시의 지도자에게 탐욕이 있는가?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나 계도에 어떤 부패의 증거가 있는가? 이 도시의 모토나 슬로건은 무엇인가?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날 이 도시의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도 연구해야 한다.

역사적 조사 중 중요한 부분이 종교적 역사에 대한 조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비기독교적인 부분과 기독교 부분의 두 가지로 나뉘어서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이 두 부분사이의 관계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기독교 종교에 있어서 이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종교적 견해와 실천 정도, 이 도시가 형성되던 시기에 중요한 종교적 교리, 현재 이 도시에 존재하는 비밀스런 단체, 이 도시에 활동하고 있는 무당과 사탄적인 모임과 혹은 다른 사이비 종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는 행정관서나 지역 내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부분 자료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직접 발로 현장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기독교 부분에서는 기독교가 언제 이 도시에 들어왔으며 기독교가 유입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역사들 해석하는 것과 일반적인 역사의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기독교가 이 도시에서 감당했던 역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역할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 역할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현 상황에 있어서 이 도시에서 기독교

가 성장, 침체 혹은 몰락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이 도시 안에 있는 종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지? 혹은 이 도시 안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지,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도시에서 교회가 분열된 역사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물리적 조사’에 있어서 이 도시의 지도들 통해 살펴되 각기 다른 종류의 지도들 확보하고 특히 오래전에 작성된 지도들 구해서 비교해보아 이 도시의 물리적 특징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아야 한다. 또한 이 도시를 계획하거나 세워갈 때 어떤 중요한 상징이 숨겨져 있지 않은가, 조각상이나 도시 구조 혹은 중앙건물의 위치에 어떤 중요한 의미(정치, 경제, 교육, 종교, 권력에 대한 상징)가 있지 않은가, 이 도시에 세워진 동상과 기념비의 배치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영화롭게 하거나 혹은 귀신적인 특징이 드러나는가, 이 도시에 어떤 유명한 고고학적인 의미(자료)가 있는가, 이 도시에 낙태시술소, 음란물 판매점, 창녀촌, 도박장, 동성연애자들의 활동장소 등 눈에 보이는 죄악의 장소가 있는가, 탐욕, 착취, 인종차별, 폭력, 질병,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은 어디인가, 대량학살, 전쟁 혹은 살인 등의 이유로 과거나 현재에 피가 흘려진 장소가 있는가, 나무, 언덕, 들, 강, 강의 위치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가, 지역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는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 거기에 세워지거나 놓여진 것은 무엇인가, 이 도시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지역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영적 조사’에 있어서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다. 비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과거와 현재에 이 도시와 관련된 지역적인 영이나 정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증인, 사탄주의, 점쟁이, 사교, 마술 등과 관련된 건물, 산, 절, 계단, 높은 곳 등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들은 지도에 어떤 형태로 만들고 있는가, 이 도시가 형성되기 전 혹은 오래전부터 우상이 경배 받는 곳이 있는가, 이교도가 경배했던 것과 관련 있는 가공품이나 예술품이 있는 문화적 중심공간은 어디인가, 이 도시의 지도자 중 우상이나 정사에 자의로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원주민이나 이 도시를 만든 사람들에 의해 저주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도자(설교자)가 이 도시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가, 이 도시에서 전도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교회들은 주로 어디에 세워졌는가,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가, 이 도시의 교회는 건강한가, 이 도시의 기독교 지도자 중 누가 도시의 지도자로 간주되는가,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을 잘 하는가, 도시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되어진 자료들 기준으로 영적 전쟁에 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원수의 손발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활발한 전도와 찬양예배 및 능력 있게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는 중보기도의 영향이라고 분석하는 입장도 있다.<sup>50)</sup>

영적 전쟁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은 아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 대한 입장도 천차만별이다. C. Peter Wagner는 기적이나 축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 형태로 구분하여 놓았다.<sup>51)</sup>

- 적극적인 반대자-더러 있지만 드러내놓고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다.
- 믿지 않음-이 단계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반대는 않지만 축귀를 하는 사람들을 축은히 여긴다.
- 의심-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진다.
- 믿음-믿기는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단계이다.
- 방관자-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지만 방관자의 입장을 취한다.
- 참여자-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한다.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단계들 한꺼번에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때론 평생을 가도 마지막까지 접근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는 노골적으로 축귀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오히려 이

50) 구자원, *대적을 바로 알자*, 413-415.

51) C. Peter Wagner, *제3의 바람(How to have a Healing Ministry without making your Church Sick)*, 정운교 역 (서울: 나눔터, 1994), 56-57.

러한 사역들이 성경적인 지지가 있다고 인정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일부 급진적인 성격의 모임뿐 아니라 보수적이라고 하던 신학자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신학적 배경이나 교단의 성격을 초월하여 교회가 병자들을 위해 증보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실제로 인터넷 서점 아마존 도서목록에는 영적 전쟁에 관련된 책이 500권 이상 올라와 있고 인터넷 검색창 구글에 들어가면 50,000건이 넘는 기독교 영적 전쟁에 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sup>52)</sup> 기독교 학자인 클린턴 아놀드(Clinton Arnold)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 역사상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한 글이 지난 10년 동안 만큼 많이 쓰인 적은 없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영적 전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는 것 같다.”<sup>53)</sup>

이렇게 된 역사적인 흐름을 보자면 모더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사단이 죽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의 그럴듯한 사고방식이 낳은 잘못이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사단도 맹렬히 되살아났다. 그런데 이때의 사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가 아니라 오락산업에 묻혀서 동화적이고 상업적인 존재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많이 부각되었지만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영적 전쟁에 있어 적은 드러났으나 그 정보가 왜곡되어서 원수의 실체를 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경적으로 연구하여 원수의 정체를 드러내고 올바르게 대적하며 증보 하는 것은 증보기도자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다.

52) Hank Hanegraaff. *하나님의 영적 보호 (The Covering)*. 마영례 역 (서울: 두란노, 2003), 6.

53) Clinton E. Arnold. *3 Crucial Questions about Spiritual Warfare* (Grand Rapids: Baker, 1997), 28.

### 제 3 장

#### 중보기도의 중요성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 새롭지 않은 일이다. 이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생활을 독려하는 설교가 전 세계에서 강조되어 설교되고 있다. 기도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 교회는 기도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하면 대부분 개인과 또한 개인과 밀접한 관계들 가지는 범주에 대해서만 기도한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기복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지만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기복적인 것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복을 구하는 편협한 기복에서 벗어나 우리의 기도로 지역을 바꾸고, 세계를 움직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는 방편이 바로 중보기도이다. 개인의 필요들 아뢰는 것은 간구라고 한다면, 지역과 세계를 품는 것을 중보라고 할 수 있다. 간구에서 중보로 기도의 중심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무게 중심을 우리 자신의 필요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사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며,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이다. 중보기도는 제사장적인 사역인데, 신약성경의 가장 도전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만인제사장직(萬人祭司長職)이다.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임명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예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성한 의무요, 귀중한 특권이다.<sup>54)</sup>

54) Foster, *기도*, 258.

이처럼 중보기도는 신자의 삶 전반에 있어서 영적인 경계들 넓히는 것인데 특별히 중보기도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목회자는 이것에 대해 더 깊이 또한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 제 1 절 중보기도의 우선성

### 1. 신학적인 우선성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이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표적인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이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들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들 아는 데 이르기들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들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딤후 2:1-6).

위정자들과 나라들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지해주는 역할이 되며 이 중보기도의 행위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들 알기들 원하시는 것이다.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는 중보자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베풀어주시는 것이다. 칼빈(J. Calvin)도 이 구절이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만인구원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구원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 자들로 보신다.'라고 해석하고 있다.<sup>56)</sup> 중보기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

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살핀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이것은 과거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중보기도의 절정은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는 확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보기도를 요구한다. 1절에 나오는 ‘도교’라는 말은 담대한 기도들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중보기도자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서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십자가로 통해 획득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한 영적인 권세가 있다. 특별히 사도직과 중보기도의 관계에서 보자면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두 가지는 바로 사도와 중보기도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의미상으로 계승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들 위해서 보내신 것은 그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들과 그들의 중보기도인 것이다. 이 부분은 신학적인 우선성과 사역적인 우선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2. 사역적인 우선성

요나의 성공적인 니느웨 선교의 두 가지 요소는 말씀의 능력(전도)과 성령의 능력(기도)이다. 선교의 객관적인 주체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써 이것의 사역적인 적용은 전도와 중보기도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들도 말씀전하는 것(전도)과 기도하는 일(중보기도)에 전무한다고 한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동반은 성경에 나오는 사역의 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의 경우에도 그의 서신에서 이것을 자중하고 있다. (바울의 예-롬 15:30-31; 엡 6:19-20; 골 4:2-3; 살전 5:25; 살후 3:1-2)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침, 전함, 고침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역의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55) J. Calvin.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vol. 9.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경교제간행사, 1979), 438.

그리스도의 계승자로 헌신한 목회자에게 있어 명하신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중보기도는 사역적인 면에서 그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다.

우선 목회자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 교회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는 그의 책 *방패기도 (Prayer Shield)*에서 “현대교회에서 가장 활용되지 않고 있는 영적 자원은 지도자들 위한 중보기도”라고 말한다.<sup>56)</sup> 그는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하기를 기도만큼 소홀하게 취급당하는 것도 없고, 성도의 대부분은 기도를 활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의 일선에 있는 목회자 자신이 우선 중보기도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피터 와그너는 동일한 책에서 특별히 목회자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말했다.

- 첫째로, 목사가 더 많은 책임감과 사명이 있다.
- 둘째로, 목사는 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
- 셋째로, 목사는 더 영적 전쟁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
- 넷째로, 목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 다섯째로, 목사는 더 눈에 잘 띈다.<sup>57)</sup>

중보기도는 목회의 첨가물이 아닌 본질이다. 목회가 인간의 지혜와 도모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지는 일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방법이다. 목회자는 중보기도를 자기 사역의 무엇보다 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목회자에게 중보기도는 목회의 열매(교회 성장)를 위해서 필요하다. 교회성장학에서나 선교역사에 있어서 교회성장과 중보기도와의 상관관계는 이미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한 학위논문도 국내에서도 여러 편이 있을 정도로 임상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지만 임상적인 검증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들 세우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우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임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경스럽게 느껴질 정도이다.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에는 그렇게 될 만한 동력이 있기 마련이다. 근자에 들어 교회에 일반경영학적인 방식을 적용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현상은 일면 우려가 된다. 하나님께서 부

56) Wagner, *방패기도*, 19.

57) Ibid., 75-84.



여하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나쁘다고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혹 이러한 방법론에만 치우쳐 교회 교유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기능적인 구조로만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면 성장하는 것이 생명 있는 교회의 특징이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공허한 마음에 남을 위해 기도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은사 있는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영적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중보기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해야 한다. 뒷부분에 언급하겠지만 본 교회에서도 화요 합심기도, 릴레이 중보기도, 기도정병단 같은 중보기도팀이 있다. 그래서 주중 성도들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고 특히 주일 낮 예배 때는 기도정병단실에서 강력한 중보기도를 한다. 이로 통해 목회자의 설교가 단순히 논리의 전달이나 설득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이다.

셋째로 현 상태에서 중보기도는 아직 미개척분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회의 블루 오션(Blue Ocean)이라고 할 수 있다. 미개척분야라는 것은 지금의 때를 놓치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 십 배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목회에도 여러분야가 있지만 특별히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이버 중보기도라는 개념의 등장이다.

사회적으로 16세기 후반부터 온 세계는 격렬한 가치관의 풍랑을 지나왔다. 중세 천년의 신(神)중심 가치관으로 있었던 시대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몰고 온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시대의 도래, 고대 문화의 재발견을 통한 인간 능력의 가능성 재고로 인한 신중심의 종속적 사고에서의 탈출, 당시 종교의 극단적인 타락과 더 이상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했던 의식적 절망, 이러한 거대한 충격파의 잇따른 총몰은 당시의 세계를 완전히 딴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자성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기득권이 가진 막강한 권력에 비견될 것은 아니었다. 온 세계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의도적인 불복종이 일어나자 마침내 교회 안에서도 거역할 수 없는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것이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은 몇몇 뜻있는 사람의 의식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운동이다. 이는 교회의 주체는 목회자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교회의 흥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sup>58)</sup> 2000년 교회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이며

그 일에 수종된 총성된 종들의 발자취이다. 덕분에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세계복음화라는 지상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다. 지나간 한 세기 즉, 20세기는 이 흐름의 끝자락에 속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자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격랑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것이 교회 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도시와 문화들 움켜쥐고 있다. 교회는 이 원수들의 정체를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급습을 당하여 수많은 침탈을 당하고 있다. 이 원수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은 20세기가 물려준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과 PC 통신이다. 이것은 인간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이 발명을 통해 통신망으로 연결된 체계를 타고 대량의 정보가 교환되고 공유되는 가상의 공간이 형성되었다. 본래 가상공간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의 소설 *Neuromance*에서 컴퓨터의 세계와 컴퓨터를 둘러싼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추상적인 공간의 의미로 사용한 용어이다. 현재는 가정, 교회, 선교기관, 신학교, 일반 교육기관, 국가기관, 그리고 각양각색의 동호인 모임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가상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의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자신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전혀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각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어찌되었든 전통적인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배, 기도, 찬송, 봉사, 교제, 전도, 선교, 구제, 기독교 교육 등도 새로운 사이버 기독교 사회에 적응시켜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사이버 중보기도라는 개념의 등장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사이버 중보기도의 특징은 첫째로, 한 번의 클릭으로 다량의 기도정보들 보다 많은 기도헌신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항상 기도의 생동감과 역동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기도정보 교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기도지원을 할 수 있다. 넷째로, 신속한 기도정보전문가의 조언과 아울러 수많은 기도헌신자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속도감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sup>58)</sup>

58) 채은수, *선교학원론* (서울: 총신대학교, 1998), 241에서 개인용. 선교신학자 David Bosch는 "교회의 선교란 구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땅위에서 은혜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의 참여와 동역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사이버 환경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상공간을 이용한 중보기도의 효율성, 신속성, 체감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도 정보 제공자들과 헌신자들의 발 빠른 대응, 즉 그런 환경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열의와 능력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다. 조만간 영화와도 같이 화상메일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응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 제 2 절 중보기도의 유형

중보기도는 최근에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지지들 받고 있는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진술한 바 있다. 또한 2장에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중보기도에 대해 근거들 제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의 유형에 대해, 또한 신자들의 중보기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1.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께서서는 전 생애들 중보의 삶을 사신 분이시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들 살리실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허락 하심으로 살렸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나사로는 죽음을 벗어나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또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서 고난을 받으시는 중에도 제자들 가운데 한명이라도 고통 받지 않으시도록 중보기도 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늘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하셨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다. 토마스 페인(Thomas Payne)은 예수님의 기도생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상과 지옥의 모든 세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였다. 그에게는 기도가 문자 그대로 전장이었다.”고 하였다.<sup>60)</sup> 예수님은 세상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 자신의 백성과 인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59) 최은수, "성경적인 중보기도사역" (강의안: 예수님의 중보기도사역학교, 2000): 207-212.

60) Wesley L. Duewel, *능력있고 응답받는 기도 (Might Prevailing Prayer)*, 주상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49. E. M. Bounds, *The Necessity of Prayer* (New York: Revell, 1920), 66에서 개인용.

간절히 중보 하셨고, 또한 중보기도로 통하여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보기도로 사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서 시도하시면서 죽으셨고 세상의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sup>61)</sup>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중보의 개념이다. 궁극적인 중보자(intercessor par excellence)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보의 올바른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중보의 삶을 종합해보면 중보는 단순한 필요를 채우는 방법론이 아니다. 참된 중보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계획과 인간의 타락으로 야기된 죄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구원사적인 차원에서 중보사역의 이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중보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창조와 타락의 상황에서 중보들 이해하면 아담은 본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책임지도록 지음 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담이 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았고,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즉 아담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자(go-between) 혹은 중보자(intercessor)였던 것이다. 이 일에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첫째 아담이 해야 할 사명을 대신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인류에게 재현시키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sup>62)</sup>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온전한 현현이다. 대제사장은 율법, 제사(속죄의 중보), 중보(기도의 중보)라는 중요한 직무가 있다. 히브리서 5장에 의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사람이 말았지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들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들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들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 5:1-4).

61) Dawson, *스릴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 262.

62) 명성훈,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 전략 52가지* (서울: 국민일보, 1999), 59-61.

신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델기세대의 반차들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히 5:7-10)

속죄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 라는 신비적 자격을 만족시켜야 하고, 기도의 중보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고난과 죽음이라는 사람을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측면과 고난 중 순종이라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sup>63)</sup>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기도의 일을 감당하신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중보자 중의 중보자(the intercessor par excellence)이다.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가지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다. 이 기도는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친구 공동체로 인도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그 공동체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도의 반경을 넓히신다. 제자들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선물이었으며, 성자께서는 그들을 성부께 보여드렸다. 성부께서는 그들을 성자에게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삼위일체의 관계적인 삶을 배우게 하셨다.<sup>64)</sup>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중보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그의 제자들-을 위해 비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 삼위일체의 신비한 연합의 관계에 그의 제자들을 초대하여 친밀한 관계들 가지게 하는 것이다.

바운즈는 중보기도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꼽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뿐 아니라 그의 생애마저도 중보기도로 이해하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병인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고치셨고 돌아보는 일들과 십자가 위

63) 이인호, "중보기도의 동치권," *예수님의 중보기도사역학교 강의안* (2000): 176-177.

64) James Houston,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The transforming friendship)*, 김진우 외 역, (서울: IVP, 1998), 218.

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우리 인간들을 위한 구주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했다.<sup>65)</sup>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지금까지도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중보기도 해 주신다. “그러므로 자기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25).

## 2. 성령님의 중보기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오늘도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 것처럼 성령도 중보자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중보기도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의 기도는 곧 그리스도의 기도가 된다.<sup>66)</sup>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는데 흠정역에서는 ‘Comforter’, 즉 위로자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의 동일 사역이자 연장 사역이다.<sup>67)</sup>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행자이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일이기 전에 성령님의 일이다. 중보기도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sup>68)</sup>

우리는 연약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다. 우리의 소망은 계속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으므로 세상에 보이는 부귀, 영화, 쾌락 등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데 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

65) Bounds, *기도* I, 446.

66) Andrew Murray,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The Secret of Believing Prayer)*, 문호미 역 (서울: 아가페, 2004), 61.

67) Jack Hyles, *성령님을 만나세요 (Meet the Holy Spirit)*, 박희원 역 (서울: 두란노, 1996), 175-181.

68) 명성훈,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 전략 52가지*, 61-62.

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롬 8:26).

잭 하일스(Jack Hyles)는 성령님의 중보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나는 나의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에게 가서 나는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말씀해주신 것들의 목록을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성령님도 나와 함께 가십니다.<sup>69)</sup>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효과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시는 중보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

### 3. 신자들의 중보기도

칼빈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70)</sup>라고 말했다.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자신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 일은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sup>71)</sup> 중보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타인과 타물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 동참하는 것이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정도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에 관한 기사는 강력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이다.

그 때에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궤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69) Hyles. *성령님을 만나세요*. 70.

70) Wagner. *방패기도*. 34.

71) Murray.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32.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숫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들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떠들 떠고 신을 들메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걸음을 입고 따라오라 한 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나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들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들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행 12:1-12).

베드로 자신도 기도했겠지만 성경에서는 교회의 중보기도들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구원해 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들 통하여 여호수아가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의 사건이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도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서신 곳곳에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다(살전 5:25; 롬 15:30; 고후 1:11; 빌 1:19; 몬 1:22). 바울은 직접적인 기도부탁의 구절 외에도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 사용함으로써 영적 전투의 동지로 그들을 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브루스(F. F. Bruce)는 이 예들 빌립보서에 나오는 ‘나와 함께 힘썼다’는 표현을 들고 있다. ‘힘썼다’라는 동사 ‘수나테레오’는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 정도를 넘는 매우 강한 의미의 동사로 ‘만족시키다’ ‘열정적으로 추구하다’ ‘내 편에 서서 싸우다’ 등의 의미들 가지고 있다.<sup>72)</sup> 에드먼드 히버트(Edmond Hiebert)에 따르면 이 단어는 ‘원수나 적에 대항하여 함께 싸운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sup>73)</sup>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여인들이 바울의 동료전사가 되어 빌립보에서 전하는 영적 전투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72) F. F. Bruce. *The Pauline Circl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5), 85.

73) D. Edmond Hiebert. *Personalities Around Paul* (Chicago, Ill.: Moody Press, 1973), 166.



이처럼 신자의 중보기도는 최근에 생긴 새로운 사조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부터 편만하게 인식되었고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단순히 기도생활을 깊이 하는 일부 신자들만이 해야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보기도는 신자의 삶에 있어 매우 근본적이고 전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기도는 내면적인 차원과 외면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 20세기의 저술가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공동체 가운데 살지 않은 채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홀로 있음이 없이 진정한 공동체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기도 없이 사는 수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피상적인 관계들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무종교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행동이라기보다 오히려 개인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이다.<sup>74)</sup>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교회성장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보기도는 연구되고 이론화되었는데 엘리자베스 아벨스(Elizabeth Avles), 토미 페라이트(Tommi Femrite), 카렌 카우프만(Karen Kaufman)같은 중보기도자들은 중보기도를 12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sup>75)</sup> 사회문제 중보기도자, 기도목록 중보기도자, 영혼 중보기도자, 개인 중보기도자, 재정 중보기도자, 자비 중보기도자, 위기 중보기도자, 영적전투 중보기도자, 예배 중보기도자, 정부 중보기도자, 인간집단과 이스라엘 중보기도자, 예언 중보기도자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들의 중보기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과 독립되어 존재할 수는 없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책 *기도*에서 중보기도를 성자 하나님과의 사역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 중보기도는 제사장적 사역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의무이고 특권이다. 중보기도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의해 그 힘을 공급받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성도의 중보기도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으로서만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sup>76)</sup>

74) Houston,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259.

75) Avles, Femrite, & Kaufman, *12가지 유형으로 본 전략적 중보기도자*, 22-23.

동일한 의미에서 토레이(Torrey)는 신자의 기도를 성령의 사역과 결부시키고 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기도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간절함과 구체적인 기도와 응답의 온전한 확신, 포기하지 않는 인내이다.<sup>77)</sup> 이로 통해 볼 때 신자들이 하는 중보기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3 절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 1. 중보기도의 특권

중보기도를 포함한 기도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는 자들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지, 기도자들 다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sup>78)</sup>

중보기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이 일에는 약속이 있다. 또한 가장 놀라운 상급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역에 있어서의 긴박성과 중요성 때문이다. 기도는 속일 수 없는 충성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바운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가 헌신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하나님께 헌신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른 동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은 오직 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해주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영적인 일을 위해 투쟁하느냐, 진지하고 끈질기냐 하는 이것만이 그가 하나님께 헌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인지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헌신이 되기 때문에 귀한 상급을 받는 것이다.

76) Foster, *기도*, 260.

77) R. A. Torrey, *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er)*,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93-197.

78) Capps,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 34-35.

중보기도는 제사장적인 사역인데, 신약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만인 제사장직을 가르치며 도전한다.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임명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예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성한 의무요, 동시에 귀중한 특권이다.<sup>79)</sup>

신학자인 도널드 블뢰쉬(Donald G. Bloesch)는 그의 책 *기도의 신학* 중보기도 부분에서 여러 속사도,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언급했던 중보기도의 견해들 소개하고 있는데<sup>80)</sup> 스펀전에 의하면 중보기도는 모든 간구 중 가장 잘 받아들여지며, 우리 세물의 가장 기름진 것이라고 했다. 웨이커교의 신비주의자인 한나 허나드(Hannah Hurnard)는 중보기도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로 통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령들’이라고 부르기 서슴지 않았다. 칼빈은 중보기도를 빗대어 하늘의 보물창고들 여는 열쇠라고 하였다.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죄인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전제로 해야 한다.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부터이다. 그는 처음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22절) “가까이 나아가”(23절) 하나님과의 대화들 시작하였다. 이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브라함의 특권이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특권을 자기 민족을 위한 탄원의 기회나 자기의 안위나 소원이 아닌 이웃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장관이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재건을 탄원한 것과도 같다. 또 하나 이것은 메대 바사의 아하수에르 왕 앞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탄원한 것과도 같다.

실로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이웃들의 연약함을 탄원할 수 있는 기회들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상의 특권인 것이다. 그것은 티끌과도 같은 우리가 감

79) Foster, *기도*, 258.

80) Donald G. Bloesch, *기도의 신학 (The Struggle of Prayer)*, 오성준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21-122.

히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다.

헝크 헤네그라프(Hank Hanegraaff)는 골프선수인 타이거 우즈(Tiger Woods)의 예를 들어 그가 골프를 통해 얻어지는 상보다는 골프 자체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 그 자체가 상이라도 한다.<sup>81)</sup>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제 그 자체가 상인 것이다. 필립 그래함 라이켄(Philip Graham Ryken)은 이에 대해

은밀한 시도에 따르는 상은 곧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  
곧 기도 그 자체이다.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주는  
한 요소가 아니라 가장 꾸밈없는 진수로 정제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  
가?<sup>82)</sup>

이광임은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에서 중보기도자의 특권을 ‘하나님의 열  
굴, 천국 열쇠, 왕의 어전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하였다.<sup>83)</sup>

## 2. 지역교회의 최대의 사명

하나님께서 세계도처에 흩어진 교회들 세우시고 지금도 은혜의 방편을 통해 지속  
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함이다. 이것은 교  
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이다. 교회는 교회들 위해 존재하는 동시에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에서 이탈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기능상의  
교회만 남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각 지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다. 특별  
히 강력한 중보기도를 통해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 위  
정자들을 위해 강력한 중보들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부각되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사명인 것이다. 교회 자립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가 자기들 비어 세상을 돕기 위해 결속하고 중보의 끈으로 견고  
한 연합을 이룰 때 그 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본거지가 되는 것이다.

81) Hank Hanegraaff, *예수님의 기도 (The Prayer of Jesus)*, 마영례 역 (서울: 두란노, 2001), 31-32.

82) Philip Graham Ryken, *When You Pray* (Wheaton, Ill.: Crossway Books, 2000), 21.

83) 이광임,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 30-53.

### 3. 영적 전쟁을 위한 필수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에서 추방된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승리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패배했지만 아직 영원한 종말은 아니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사단은 도처에서 이러한 악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영적 전쟁은 획일화된 분야가 아니다. 사단은 다양한 양상과 분야에서-전 영역에서-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각기 분야들이 다른 분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불가피하게 상호 연관이 되어 있지만 사단이 도발해오는 차원을 피터 와그너는 3가지로 구분했다.<sup>84)</sup>

첫 번째는 국지 차원의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한 교회의 전통에서도 교회 사역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는 주술종교 차원의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사단숭배, 마술, 유사 기독교, 동방종교, 뉴에이지, 샤머니즘, 점성술이나 기타 다양한 주술종교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귀신을 세력을 다룬다. 이 부분은 국지차원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접근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세 번째인 전략 차원의 영적 전투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한 것과 같이 높은 지위의 정사들과 세력들을 대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적들은 종종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혹은 지역 악령)'으로 일컬어지는데 이들은 도시와 사람들의 그룹, 종교적인 충성도, 산업 같은 다양한 매개체들 통해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포로상태로 결박하고자 시도한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다가오는 사단의 도발에 대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이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장이신 예수님께 의해 전쟁 전에 중보기도들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중보기도 사역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승리들을 안겨다 준다는 특권이다.<sup>85)</sup>

84) C. Peter Wagner, *영적 전투를 통한 교회 성장 (Confronting the Power)*, 나겸일 역 (서울: 서로사랑, 1996), 23-24.

85) 박원영, "여호수아 프로젝트: 지역사회를 점령하는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사역학교 강의안*, (2000): 126.

일선에서 목회의 현장을 겪고 있는 목회자 중에는 중보기도는 비록 신약성경에 있는 은사목록 25가지에 들어있지 않지만 귀신 쫓는 은사처럼 중보기도의 은사도 은사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신디 제이콥스(Cindy Jacobs)도 중보사역에 대해 일어나는 많은 의견들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 중보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중보의 은사는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중보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입장에 접하게 될 때 느낄 당혹감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정리들 하고 있다.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모범이신 예수님과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은사의 측면에서 보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한 쪽에서는 중보의 수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섬김의 사역의 일부인 것입니다. 중보의 은사를 받은 중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기도인도자라는 직임의 은사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보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나아가 중보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합니다.’<sup>86)</sup>

중보기도의 은사에 대해 피터 와그너는 “중보기도의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 능력으로써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정규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드린 기도가 특별히 자주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받는 은사”라고 정의한다.<sup>87)</sup> 그가 말하는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 오래 기도한다.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많은 경우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까지 매일 기도한다. 둘째, 훨씬 더 강도 있게 기도한다. 셋째, 기도들 즐기고 개인 기도 시간을 만족해한다. 넷째, 기도응답이 많고 또 적극적인 편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많은 경우 예언의 은사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서 전체 성도의 5퍼센트 정도가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sup>88)</sup>

86) Cindy Jacobs, *대적의 문을 취하라(Possessing the Gates of the Enemy)*, 고세중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6), 73-74.

87) Wagner, *제3의 바람*, 74-76.

88) Wagner, *쌍궤기도*, 56.

#### 4. 중보기도의 의무

존 웰치(John Welch)는 중보기도의 의무에 대해서 “성령이 기도의 부담을 허락하는 사람들은 바로 중보기도의 의무병”<sup>89)</sup>이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는 아무런 이의도 달 수 없다. 그는 결코 그의 기도들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에 대한 용서들 호소한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야말로 아브라함의 가장 절실한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여섯 번을 되풀이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내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들의 용서들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로 받아드리고 있었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민족 앞에 고백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말을 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제사장의 일을 제사 의식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차지하는 것은 중보기도이다.<sup>90)</sup> 그리스도인들은 사무엘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와 같이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는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의하여 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첫째,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하는 범주에 속한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89) 이인호, *중보기도의 통치권* (강의안: 예수님의 중보기도사역학교, 2000): 184.

90) W. Bingham Hunter, *프레이어 (Prayer)*, 김원주 역 (서울: 규장, 1998), 169.

둘째, 중보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교와 감사들 하되"(딤펴전 2:1). "이러므로 너희 죄들 서로 교하며 병 낫기들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

셋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에서 다섯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중보기도는 "항상 살아서 저희들 위하여 간구하시라"(히 7:25) 예수님의 뒤를 이어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으로서 갖는 책임이며 티끌과 같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교상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제 4 절 지역 교회 연합을 위한 중보기도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한 몸이라고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룬 개개인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한 몸을 이룬 곳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능력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여 힘을 모으는데 달려 있다. 하나로 연합하여 사귀는 성도들 사이에서 성령은 완전한 능력을 보이실 수 있다.<sup>91)</sup> 따라서 각 지역 교회들이 서로의 교회와 연합을 도모하고 이 연합을 통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이다. 중보기도 사역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중보기도란 자체가 내향적 기도가 아닌 외향적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을 한 교회 안에서 폐쇄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다. 올바른-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교회라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수적으로 연합 사역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91) Murray,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32.



### 1. 연합의 필요성

중보기도는 하나의 연주로 비유될 수 있다. 한두 악기보다 여러 가지 악기로 조화롭게 소리들 낼 때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처럼 중보기도도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여기에서 ‘합심하여’(symponeo)는 음악 용어로서 “조화된 소리들 낸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즉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의 악기로, 합심기도는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화음이다. ‘합심’이라는 단어에서 ‘교향악(symphony)’과 ‘조화(harmony)’라는 말이 생겼다.<sup>92)</sup>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음을 맞추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지휘자와 같다. 우리는 기도 합주회에 참가하는 중보기도자들이다.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현악, 등소, 큰 소리 나는 계급, 높은 소리 나는 계급 등 각자의 악기 소리들 아름다운 화음을 따라 내도록 부르심 받았다(시 150:1-6). 연주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마 6:33) 일치와 연합 가운데 각자 조화된 기도의 소리들 발하여야 한다.

영적 전쟁에 있어 중보기도의 제목을 찾았다면 이것은 전쟁터들 찾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 뒤에는 그 전장에 같이 나갈 자들을 찾아야 한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중보할 동역자들을 찾아야 한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선택했다. 여호수아는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동료들을 조심스럽게 골랐다. 그들은 연합했다. 이런 연합의 전제는 바로 공동된 목표에 대한 초점이다. 기도의 공격목표가 서로 공유되면 다양한 계급의 군인들이 하나의 군대가 되어 정렬하게 된다. 이 전투에 있어 가장 위협이 되는 장애물은 집중된 목표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다.<sup>93)</sup> 이 영적인 군대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모아 연합할 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이 필요한 이유들 정리해보자면 첫째, 영적인 영웅은 존재하지 않는다(전 4:12). 둘째, 영적인 상담이 필요하다(잠 24:6). 셋째, 영적인 협력은 기도 효

92) Hyles. *성령님을 만나세요*. 71.

93) Avles, Femrite, & Kaufman. *12가지 유형으로 본 전략적 중보기도자*. 302-307.

과를 배가시킨다(전 4:9). 넷째, 영적인 회복은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이다(마 5:23-24).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장점과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할 필요성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는 다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실현될 수 있다. 한 몸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몸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과 계획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힘, 곧 우리의 조화된 힘을 통하여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다.<sup>94)</sup>

하나님은 우리가 상호의존하게 하심으로써 훨씬 더 쉽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신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리스도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야 하고 그들과 함께 자라야 한다. 우리에게 가정과 지역사회가 있는 것도 그 이유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도시의 지역 교회들을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상호 의존하게 하신다.<sup>95)</sup>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연합할 때 가장 잘 성취된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상호의존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이 발생한다. 첫째, 우정과 신뢰의 유대감이 깊어진다. 둘째, 동역의 기반이 확대된다. 셋째, 전도 효과가 극대화된다. 넷째, 확신 있고 수월하게 지도력을 발휘한다.<sup>96)</sup>

도시라는 무대에서 지역교회 목회자야말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대사들이다. 즉 그들은 도시에서 최고 영적 권위자들이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장이시고 목회자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목자다. 사단이 도시 전체를 어둠 가운데 장악하는 주요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체계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것이다.<sup>97)</sup> 따라서 지역교회의 연합과 교단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의 연합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효과적인 영적인 무기인 것이다.

94) Ted Haggard & Jack W. Hayford, *지역을 바꾸는 교회 (Loving Your City into the Kingdom)*, 예수전도단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53.

95) Ibid., 56-57.

96) Ibid., 57.

97) Haggard & Hayford, *지역을 바꾸는 교회*, 82-83.

## 2. 연합의 방법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기도와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와 사람들의 진정한 연합의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기도와 말씀이 아무리 탁월해도 연합과 일치에 결여되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흥을 위한 일치는 하나님과의 일치, 신자들과의 일치, 목적을 위한 일치,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해하는 것의 일치 등의 네 가지에 일치(consistency)가 필요하다.<sup>98)</sup>

증보기도사역자 신디 제이콥스는 연합 모임을 위한 지침<sup>99)</sup>으로 첫째, 인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것, 둘째, 모임의 흐름에 따라 기도할 것, 셋째, 다른 일로 기도할 때까지 말 것, 넷째, 긍정적인 방식으로 기도할 것, 다섯째, 서로에 대한 예언으로 기도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여섯째, 모임 전체의 필요에 대해 민감할 것, 일곱째, 당신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둘 것, 여덟째, 부지런히 당신의 심령을 살필 것, 아홉째, 인도자의 뒤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을 제시한다.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제시하는 성경구절을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로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골 3:9). 둘째,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봉사하라(엡 5:21; 갈 5:13). 셋째, 서로 판단하지 말라(롬 14:13). 넷째, 서로 용납하라(골 3:13). 다섯째, 서로 덕을 세우고 위로하라(롬 14:19; 살전 4:18). 여섯째, 서로 뜻을 같이 하라(롬 15:5). 일곱째, 서로 문안하고 돌아보라(롬 16:6; 고전 12:25-26). 여덟째, 서로 기다리라(고전 11:33). 아홉째, 서로 사랑하라(살전 4:9-10; 벧전 4:8). 열째, 서로 원망하지 말라(약 5:9). 열한째,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약 5:16; 벧전 4:7). 열두째, 서로 겸손하라(벧전 5:5-6).

교회 역사상 합심기도 없이 위대한 영적각성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면 언제나 복음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증보기도자들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31).

98) Dawson, *스릴있고 성취감 넘치는 증보기도*, 218-220, 명성훈, *하늘문을 여는 증보기도 전략 52가지*, 185에서 재인용.

99) Jacobs, *대적의 문을 휘하라*, 263-265.

### 3. 지역 전체의 변화와 지역 교회의 성장

지역의 교회들 통해 그 지역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사례는 굳이 역사를 찾지 않더라도 많이 볼 수 있다. 예수 행진(Marches for Jesus), 기도 합주회(Concerts of Prayer),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Promise Keepers), 그리고 2000년과 그 이후 운동(A. D 2000 & Beyond Movement) 등과 같은 초교파적인 연합운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연합되고 있다.<sup>100)</sup>

연합 사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 가운데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생명력 회복과 지역사회에서의 교회 역할의 자리매김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신자 즉 교인이다. 교회는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비전도 교인 없이는 무의미하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는 “거미줄도 모으면 사자들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했던 헬렌 밀러(Hellen Miller)의 말이 잘 응변해주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개교회의 연합의 차원에서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한 교회로서 지역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역의 교회가 교단과 신학적인 배경을 초월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모인다면 연합된 교회들 통해 지역을 바꾸는 일은 가능해진다. 지역의 필요에 대해 교회만큼 민감하고 또한 손익을 따지지 않고 인력과 재정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역을 통해 교회는 점점 지역의 영적인 산소탱크로서의 자리매김을 해가는 것이다. 산상보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또한 연합적인 차원에서도 구분됨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교회 연합을 통한 전략적 증보기도 사역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지역구원의 열쇠는 지역교회들이 가지고 있다.<sup>101)</sup> 이들 위해서는 값진 헌신의 대가들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연합이다.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사역을 할 때에 개교회가 얻는 유익에 대해 테드 해가드(Ted Haggard)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00) Bob Beckett, *지역을 바꾸는 기도 (Commitment to Conquer)*, 예수전도단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177.

101) Beckett, *지역을 바꾸는 기도*, 196.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지 측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경으로부터 귀한 양식을 먹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하는 기회다. 셋째로 우리 사역에서 간과하였을지도 모를 잠재적인 약점을 확인하는 기회다.<sup>102)</sup>

이러한 일들이 단기적으로는 각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병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의 체질을 더 튼튼히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교회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연합을 이룰 때에 각 교회의 건강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생명력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의 영적인 변화까지 꾀하게 된다.

---

102) Haggard and Hayford. *지역을 바꾸는 교회*, 243-249.

## 제 4 장

### 봉덕교회가 위치한 지역 상황

본 장에서는 봉덕교회가 위치한 대구 남구지역에 대한 지역분석을 하고자 한다. 지역분석을 함에 있어 인구, 문화, 종교, 교육 등 여러 측면의 지역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본 논문의 주제들 다루기 위하여 종교적 지역상황을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대구 지역은 절대적으로 불교의 세가 높은 곳이며, 아울러 유교와 샤머니즘의 영향도 적지 않은 지역이다.

#### 제 1 절 지역 사회에 대한 진단

##### 1. 교회가 위치한 남구의 현황

앞에서 본 것처럼 남구는 불교의 신흥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입장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영남불교대학은 도심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초보불자들에게 기초교리와 신행 방법을, 연륜 있는 불자들은 불교사상에 대한 강의들 듣게 하고 특히 다양한 교양강좌들 마련하고 있어 불자들에게 문화생활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1992년 5월에 바른 깨달음 성취와 온 세계 정토구현이라는 이념으로 설립하여 근본 불교, 세계 불교, 첨단 불교라는 기치들 내걸고 2000년 7층 7보탑 낙성식을 갖고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좋은 인연 복지관 사업(2002), 불교 유치원 참좋은 유치원 사업(2003) 인터넷 포교 사업, 불교 만화 포교 사업, 사이버 불교 대학 사업, 인터넷 불교 신문, 불교 월 회보 사업, 불교 출판 사업, 불교 탁아 시설, 불교 전통찻집, 갤러리, 인터넷 불교TV 방송국 사업, 영남 불교 문화관등을 추진하며 불교 포교와 불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영남불교대학은 최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참좋은 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유치원은 남구 지역뿐 아니라 대구 지역 전체에 어린이

들을 대상으로 원아모집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 이 유치원을 필두로 해서 여러 불교 유치원들이 최근 10년간 최고의 시설과 교육환경을 구비하고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그들은 신도들의 노령화로 젊은 층의 신도수가 감소되어지자 젊은 층의 신도들을 겨냥하여 유치원을 세우기 시작하여 한국의 유아교육은 불교가 책임진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큰 절들이 산을 내려와서 도시 속에 유치원을 세우고 이곳을 기점으로 포교원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 지난날 교회들이 전도들 위하여 선교원을 시작했던 것과 같은 의도지만 그때보다 훨씬 규모 있고 사찰차원에서의 지원 역시 막대하다. 최고의 시설로 세워진 불교 유치원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몰리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교인들까지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남구 지역은 절대적으로 불교의 세가 우세하다. 그러나 불교뿐 아니라 유교의 영향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곳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신라 이래의 불교정책을 억제하고 일상생활 예절의 근본이 되는 유학을 널리 펴고 백성들을 무지로부터 해방하여 단군의 개국이념인 홍익인간을 실현하고자 국민교화정책을 폈다. 그래서 전국 234개 군현에 향교를 세웠으니 이때가 1398년(단기 3731년, 태조 7년)이었고 대구에도 각 구별로 여러 개가 세워졌고, 여러 차례 이전, 증건하는 변천의 과정을 겪었다.

서원과 향교 모두 선현에 대해 제사를 지내고, 강학을 하는 학교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 기능으로만 본다면 서원과 향교는 똑같이 성리학을 공부했던 중등교육 기관이었던 것이다. 그 차이는 서원은 사립 교육 기관이고 향교는 공립 교육 기관이라는 것이다.

향교의 기능으로서의 첫째 교육을 통해 백성을 문맹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큰 목적과 둘째 지역 전통문화활동의 근거지로서의 선도 역할과 셋째 공자들 위시한 여러 성현 군자와 큰 스승을 모셔 제례를 올림으로서 예절 의식을 널리 확산하고, 도덕적 인간상 구현과 각인의 자아성취와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들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들 분명히 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이 향교도 일종의 종교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중기가 지나면서 향교는 나날이 힘을 잃게 돼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서원이 거의 맡아하게 되었고, 향교는 지방 양민들이 균역을 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 때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교육기관으로서의 향교는 이름만 남게 되고, 오직 문묘에 대한 제사만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향교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향교는 봉안한 성현의 수에 따라 대설위, 중설위, 소설위로 구분되며, 대설위는 공자와 공문 4성(공자, 안자, 중자, 자사, 맹자), 72문도, 한, 당나라 선비 38위, 국내 선비 18위 등 총 133위, 중설위는 공자와 공문 4성, 십철과 송4현, 국내 선비 선유 18위 등 총 37위, 소설위는 공자와 공문 4성, 송4현, 국내 선비 18위(설총, 이황, 이이 등) 등 총 27위를 제사한다.<sup>103)</sup>

남구지역에는 조선시대에 건축되어진 향교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유교문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유교라고 하는 느껴지던 고압적이고 남녀차별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 시대의 옷으로 입고 예절과 민족의 정신적 가치라는 명분으로 젊은이들을 파고들고자 한다.

## 2. 지역주민들의 종교성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 사상은 그 후 약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신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고구려나 백제보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불교가 유입된 이 지역은 초창기에 귀족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차돈의 순교 등의 영향으로 법흥왕 14년이었던 서기 527년에 공인이 되었다. 그 후 신라가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방은 불교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

대구 지역의 불교는 신라 소지왕 시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대구에 본격적으로 많은 절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관암사, 관음사, 남지장사, 동화사, 부인사, 북지장사, 안일사, 용연사, 은적사, 임휴사, 파계사 등이 지어졌고, 이중 몇 개의 절은 사라졌지만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와 그 말사인 파계사, 부인사는 아직까지 남아서 대구의 3대 사찰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부처 중의 하나인 갓바위(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와 세계에서 가장 큰 30미터 높이의 동화사 통일대불(남북통일 발원 약사여래 석조 여래 대불)도 팔공산에 남아 오늘에 이른다. 흔히 갓바위라 불리

103) 문경아 외, 대구 영적 도해 보고서, 2.



는 관봉 석조여래좌상은 팔공산 해발 850미터의 관봉에 위치해 있는데 독특하게 불상의 머리 위에 두께 15센티미터의 평평한 자연석을 갖 모양으로 다듬어 올려놓았기 때문에 '갯바위'라고 많이 불리고 있다. 갯바위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 대구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영험한 부처로 알려져 있어 대학입시들 앞두거나 큰일을 앞둔 사람들이 찾아 치성 불공을 드리는 곳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한국의 대구의 기복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다.<sup>104)</sup> 이처럼 팔공산에 불교에 관련된 중요사찰과 암자가 집중적으로 위치해있어서 대구 불교의 뿌리는 팔공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팔공산에만 11개의 사찰과 9개의 암자가 있다.<sup>105)</sup>

고려로 왕조가 바뀌었어도 지속적인 불교의 지지로 인해 번성일로에 있었다. 특별히 고려는 개국 당시에 팔공산과 대구 지역과는 깊은 관계들 가지는 곳이 많다. 지금도 반야월이나 안심, 팔공산 같은 것은 고려 개국과 깊은 관계들 가지며 계속해서 대구 지역이 불교의 깊은 영향권 아래 유지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조가 되면서 승유억불정책으로 인해 외부적으로는 불교의 세가 많이 꺾였지만 민간 깊숙이 자리하던 불교의 사상을 깨끗이 떨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찰들이 심산유곡으로 자리하게 된 것도 이러한 조선의 정책에서 기인 한 것이지만 민간의 생활 속에 이미 기반을 잡고 있던 터라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 고려와 조선을 지나오면서 한국 불교는 호국불교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많은 외침에 대해 국가의 정신적인 중심이었던 불교가 종교의 자리 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데에도 성직자가 앞장을 서고 사찰이 본가지가 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조선이 비록 정책으로는 불교를 장려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일정한 거리들 두면서 의도적인 방치로 통해 보존된 것이다.

현대에 오면서 불교는 점차 포교원이나 불교대학, 교육시설 등을 통하여 산 속에서 도시로 내려오고 있다. 현재 대구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본교회가 위치한 남구 지역이다. 대구 지역의 역사적인 불교의 진원지는 북구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의 현대화와 포교의 거점 지역은 현재 남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남구에는 불교 유치원, 불교 회관, 불교 대학이 자리들 잡고 있다. 특별히 영남

104) 향토사교육연구회, *대구 역사 기행*, 80.

105) <http://www.daegu.go.kr/Palgongpark/Default.asp>

불교대학과 관음사는 남구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점차 그 세를 확대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2005년 11월 1일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4,97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퍼센트이며, 이는 지난번 조사였던 1995년에 비해 2.4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종교유형별로 보면 총인구 중 불교 인구가 22.8퍼센트로 가장 많고 기독교가 18.3퍼센트들, 천주교가 10.9퍼센트로 나타났다.<sup>106)</sup> 한국의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변화추이를 보면 불교와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천주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구와 특별히 남구 지역 주민의 종교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 위주의 혼합된 신앙 색채를 띤다고 볼 수 있다. 대구 지역의 인구대비 불교 인구는 통상 30퍼센트 정도 나오고 유교 신봉자는 거의 없지만 실제로 불교나 유교나 기타 무속 종교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시민들은 상당수이다. 지역적인 정서의 영향도 있고 또한 기독교가 외세종교라는 편견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전반적으로 종교성이 강한 편이지만 특정 종교라기보다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도로확장을 위해 공사 중인 신천 문치에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물로 답을 쌓아 놓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샤머니즘적인 종교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앞산이나 팔공산 구석구석에는 기를 받기 위해 밤에 촛불을 켜고 정성을 들여서 불과 연기에 그을린 바위들과 고목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미신에 붙잡혀 있는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연초에 그 해의 신수가 어떤지 궁금한 마음에서 점을 치는 습관이 있다. 가정 집 대문이나 식당의 벽에 액운을 없애는 부적이 붙어있는 것을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정도로 미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지역이다. 대구의 미신업자들은 현재 남구 남산동 일대와 봉덕동(교산골) 일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실정이다. 이 두 지역은 대구 중심부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다.

남구 지역을 포함한 대구 지역은 강한 불교적 영향으로 인해 지역 정서상 불교가 민족종교이고, 기독교는 외래 종교 혹은 서양 종교라는 선입견 때문에 불교가 전

106) 정영연, *대구의 영적 조사* (대구: 도시를 위한 연합중보기도모임, 2006), 2.

통이라는 명목아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주요한 산에 사찰들이 있고 사찰중심으로 불교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결국 시대를 거쳐 대구는 불교를 숭배한 왕조들의 보호 속에 불교의 도시로 성장하여왔고, 대구에 있어서 불교의 영은 오늘날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sup>107)</sup>

### 3. 영적 도해 및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준비단계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자료수집이 치밀하게 잘 되고 분석이 정확하게 될수록 영적 전쟁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일은 이러한 현실을 단순히 무시하고 사는 것이다. 즉 성경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이 동의하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위에서도 치열한 전쟁은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각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똑같은 유혹이 우리와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sup>108)</sup> 따라서 성경적으로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도시 사역과 연합에 손을 대면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가 속해있는 지역인 대구에 대해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대구의 형성역사와 이 도시가 역사 가운데 겪었던 주요한 사건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들을 연구하고 파악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도시를 위해 중보하는 것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가. 영적 도해의 정의

영적 도해란 생소한 단어지만 실제 그 개념들은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나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영적 도해 혹은 영분별도라고 하는 'spiritual mapping'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조지 오티스(George Otis)의

107) 문경아 외, *대구 영적 도해 보고서*, 8-10.

108) Dawson, *스릴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 26.

*The Last of the Giants*의 4장에서이다. 그는 이 책에서 영적 도해에 대해서 “영적 도해는 하나의 도시들 외양 그대로(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있는 그대로) 보려는 시도”<sup>109)</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자면 영적 도해는 물질세계의 표면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영적 도해들 이렇게 정의하였다. “영적 도해란 정확히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그것은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고 어떤 도시들 복음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만든 침입로들 찾아내기 위해 어떤 도시들 조사하는 것이다.”<sup>110)</sup>

남미 과테말라의 목회자인 H. Cavalleros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감각을 초월하여 주어지는 비전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두움의 영적인 세력들을 드러내주시는 것이다. 영적 도해는 우리 위의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미지, 즉 영적인 사진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영적 도해는 물리적인 전쟁에서 정보 입수 및 정탐 활동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수의 전선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들 보여준다고 한다. 또한 영적 도해는 도시들 위해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서, 원수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이며 전략적인 교도의 전투수단이라고 한다.

#### 나. 영적 도해의 목적

영적 도해는 지역 악령(territorial spirits) 이론에서 발전된 분야이다. 도슨은 그의 책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사단은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들의 배후 조종으로 인해 역사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드러났다고 한다.<sup>111)</sup> 그

109) C. Peter Wagner. *지역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 (Breaking Strongholds in Your City)*.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17.

110) Ibid., 92.

111) John Dawson.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들 점령하라 (Taking our cities for God)*. 유계국 역, (개정 2판: 서울: 예수전도단, 2005), 155-160.

도시의 역사들 보면 그 지역에 견고하게 자리들 잡고 있는 영의 정체들 알아낼 수 있고,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정보들 얻는 것과 같다고 한다. 압박의 종류나 구체적인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국'이나 '헬라군'의 언급,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했던 맹수와의 싸움은 문자적인 내용 이면에 영적인 정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뉴욕이라면 돈, 시카고는 폭력, 마이애미는 정치적 음모라는 것과 연계들 시키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남부 침례 외국 선교회의 데이비드 바렛(David Barret)과 AD 2000 운동의 루이스 부시(Luis Bush), 파수대의 조지 오티스 같은 학자들이 선교현장을 확인하면서 복음화가 필요한 지역이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이르는 좁은 지역(10/40 windows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 이른바 '마귀의 참호 구축'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세계의 어떠한 부분보다 복음 확장에 소극적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새로운 작전상황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현 세계는 보이는 이면에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조지 오티스는 이것을 표시해놓은 것은 영적 도해(혹은 영분별도)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서 영적 도해는 현 시대의 영적 기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에서 기인한 것이다. 영적인 어두움은 점점중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적인 압제와 관련하여 어떤 지리적인 구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sup>112)</sup> 이처럼 영적 도해 개념의 핵심에는 사단의 지역적인 견고한 진이 있다는 개념이 터 잡고 있다.

영적 도해는 매우 실제적이다. 즉 영적 도해들 위해서 실제적인 지침으로 지역의 이름을 연구하고, 지역의 본질을 확인하고, 지역의 역사들 살펴보고, 기념비, 공원, 고고학적 유적지, 동상, 현재 활동 중인 기관의 성격, 성소나 사당 혹은 사단 경배 처소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한 귀신을 알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 주적을 알아내는 것이 영적 싸움을 쉽게 해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영적 도해의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입함에 있어

112) 강명호,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2000), 23-24.

그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많은 영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령들의 이름을 알고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면 그 악령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도해는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적 도해는 역사적이고 영적이고, 물리적인 조사들 기초로 하여 도시의 새로운 지도들 그리는 작업이다. 모든 자료들 지도로 그리게 되면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산들과 강, 숲을 있는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지도들 보게 해주는 도구이다.<sup>113)</sup>

이러한 영적 도해의 예로 자주 나오는 것이 버뮤다 삼각지대이다. 잣은 선박 및 항공기 사고에 대해 1972년 맥알(McAll)과 그의 부인이 역사 조사들 통한 영적 도해 작업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과거 노예 상인들이 병약해서 팔아넘길 수 없는 노예들을 200만 명 이상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영국의 주교들, 사제들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하여 1977년 7월 성만찬을 한 이후로 잠잠해졌다는 주장이다.<sup>114)</sup>

영적 도해는 어두움의 역사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의 세력과 사건들에 대해 이해한 바들 물질적 세계의 장소와 환경 위에다가 놓을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세력과 사건들이 모두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듣는 것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영적 전쟁이 단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은사이거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은 개성이나 은사, 소명, 배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몰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sup>115)</sup>

영적 도해는 우리가 지역사회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좀 더 구체적이고 능력 있게, 또한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다. 우리가 어떤 도시들 복음화

113) 김경미, "중보적 기도들 통한 도시선교 리서치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2004), 35.

114) 유정안, "영적 전쟁을 통한 교회 성장" (석사학위논문, 한세대 신학대학원, 1999), 25.

115) Dean Sherman,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이상신 역 (개정 2판: 서울: 예수전도단, 2002), 28.

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는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과 벌이는 영적 전투의 성공여부에 정비례 할 것이다.

영적 도해들 함에 있어서 3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과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들, 도시나 지역적인 특징을 찾는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된 영적 도해들 근거로 처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부분, 특히 사단에게 넘겨져 이 세상의 영역으로 변형되고 구부러진 영역들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영적 전쟁이다.<sup>116)</sup>

#### 다. 영적 도해의 평가

영적 도해라는 말은 생소한 말이다. 사실 성경에 없는 말이요 숨어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선교 사역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또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다분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영적 도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이다. 영적 도해가 마치 지역을 성경적으로 바로 파악하는 유일한 수단처럼 여기는 옹호론자가 있는 반면, 자료의 수집과 분석 있어 개인의 특징과 성향에 따라 편향되어 나타나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영적 도해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

현재 영적 도해는 능력대결의 세부 카테고리 다루어지고 있다.<sup>117)</sup> 다시 말하면 영적 도해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대결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로서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영적 도해의 긍정적인 면<sup>118)</sup>을 보자면 우선 영적 도해는 하나의 선교기도운동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적 도해는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데 있어서 더 구체적이고, 능력 있게 기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또한 영적 도해는 효과적인 복음화를 염원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영적 도해는 지역적인 영역에서의 연구의 기능과 영적인 영역 사이에서의 영적 전쟁을 결부시키려는 시도들

116) 김경미, "중보적 기도들 통한 도시선교 리서치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35.

117) 이장석,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도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실천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 신학대학원, 2000), 43.

118) Ibid., 43-44.

하고 있다. 물론 이것에도 여러 가지 약점과 신학적인 위험성이 있지만-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다룰 것이다-이것은 서구의 세계관을 탈피하여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자 새로운 시도로 전개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로 영적 도해는 기존의 문화적인 민감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영적 민감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타문화 사역의 이슈들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문화인류학적 관점이 문화의 집단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사역자가 거기에 적응해야 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영적 도해의 관점은 그 문화권의 어두운 세력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의 영적인 분별력과 역량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넷째로 영적 도해는 선교학의 방법론에 있어서 사례연구 위주의 경험주의적 방법론을 과감히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론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관적인 편견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이 역시 뒷부분에서 재차 언급 할 것이다-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제들 인식하고 성경적인 근거들 찾으려는 노력들이 진행 중이고, 개인이 아닌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 이것을 더욱 공교히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다섯째로 영적 도해에서는 도시 선교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도시 선교에 활력을 불어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지는 도시화의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인 참혹함을 드러내 보임으로 도시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인이 되는 것이다. 여섯째로 영적 도해는 사단의 활동 중 특수한 사례들 잘 드러내어 줌으로써 사단의 미혹이 얼마나 광범위한가에 대해 폭로해 주고 있다.

영적 도해가 이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무엇보다도 영적 도해 이론은 성경적인 근거가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영적 전투라는 개념은 대부분 간증과 성공담 같은 것을 기반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영적 도해는 성경에 기반을 둔 신학적이고 연역적인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파생된 귀납적 이론이다. 이러한 성경적 기반의 취약성은 영적 도해에 대해 지지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피터 와그너도 그의 책에서 이 점을 시인하고 있다.



나는 솔직히 내가 강한 편향들과 제한들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한다. 내 일생의 소명은 세계복음화이지 철학이나 신학이 아니다. 나는 선교학 전문가이지 선교역사나 선교신학이나 선교인류학이 아니다. 나는 전략 차원의 영적 전투들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의 모든 국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목사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역사가들, 인류학자들, 기타 사람들은 전략 차원의 영적 전투들 조명하에서 보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몇 가지 점들에서 불일치 할 수 있다. 나는 성경적으로 과정 지향적이기보다는 목표 지향적이다. 내게는 이론들보다는 적용이 더 중요하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론들은 적용 가능한 것들이다. 119)

이처럼 영적 도해는 실용적이면서 적용적인 성격이 강하다. 확대해서 말하면 교회성장학파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기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전략한 것이다. 그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서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을 시도한다.

성경적 근거의 취약에서 연달아 파생되는 문제는 주석적 근거의 미약이다. 이들이 영적 전투나 영적 도해, 또한 지역 악령, 저주 끊기 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구절의 주석 작업에서 성경 자체의 주석 작업 가운데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들이 성경적 지지들 얻기 위해서 특정 성경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확대해석이나 해석적 비약들이 이뤄진다. 또한 문맥 가운데 진의를 파악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 문장이나 단어 하나에 집중해서 그것으로 근거들 삼으려는 시도도 허다하다.

영적 전투에서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다니엘이 금식기도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오던 중 바사국 왕들의 방해들 받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다니엘에게 도착했다는 기사가 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비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

119) Wagner, *영적 전투들 통한 교회 성장*, 54-55.

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단 10:12-14).

교회성장학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두고서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다니엘의 유일한 무기는 전투적 기도였음을 확인해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다니엘이 전략적 수준의 영적 싸움인 전투적 기도를 시행했다고 보이는 대목은 없다. 다니엘은 단지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가 후에 들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결코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투를 알지도 못했고 시행한 적도 없다.<sup>120)</sup>

심지어 성경에서 능력 대결의 가장 확실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에서도 전략적 차원의 기도로 보이는 구절은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지역 악령을 내쫓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께 간절한 청원을 드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문제와 씨름하였던 것이다.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의 여러 구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성경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다이아나(아데미)'라는 지역 악령과의 대결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sup>121)</sup> 이러한 논리 전개는 자의적인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자유함을 얻었으며 많은 이적도 일어났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적인 흐름이다. 굳이 이러한 일들을 다이아나(아데미)를 지목하여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투를 벌였다고 연역해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바울은 전통적인 복음전도 방법을 따라 전도했고 결과적으로 허다한 영혼이 돌아왔고 사단의 영향력이 폐퇴된 것이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성경에서 드러내는 이 사실을 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면에 있는 그대로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부분을 있는 그대로라고 수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문화인류학이나 고고학적인 자료가 중요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이러한

120) 강명호,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49.

121) Wagner, *기도는 전투다*, 73-74.

것들이 성경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 이 이론이 자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말한 부분에서 이들은 성경 외의 다른 수단들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분위기였지만 오히려 지역 악령 부분에서는 역사적 사료와 고고학적인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논리들 세우기 위해 때론 수용하고 때론 버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양자의 입장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취하는 것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주관적이지만 역사, 사회학적인 관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것이 증명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객관적<sup>122)</sup>이라고 주장한다.

영적 도해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 입장이다. 이미 이 땅은 귀신에게 내어준 땅이고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이 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받았다고 한다. 특정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악령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귀신이 들어오는 요인들도 제시하고 있다. Bob Beckett은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들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개인의 죄, 조상의 죄, 학대(거절, 상처), 주술(신비술, 비밀결사 조직), 저주가 그것이다.<sup>123)</sup>

이러한 이론 역시 성경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축사사역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들을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sup>124)</sup> 에드 머피(Ed Murphy), 프랭크 해몬드(Frank Hammond), 아이더 메이 해몬드(Ida Mae Hammond), 존 샌포드(John Sanford), 폴라 샌포드(Paula Sanford),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 노엘 깁슨(Noel Gibson), 펄 깁슨(Phyl Gibson), 존 워버(John Wimber) 그리고 도리스 와그너(Doris Wagner) 등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마치 성령과 악령을 그 문자적인 의미로만 파악해서 동등한 위치의 상반개념으로 이해하는 오류가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과 악령을 각축장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권능을 심각히 훼손시킬 우려가 농후하다. 근자에 와서는 동양적인 세계관이 이 사상에 합류하면서 동서양의 신화적인 요소가 혼합이

122) 개두병, "효과적인 도시목회에 관한 전략연구: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들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1998), 29-30.

123) Beckett, *지역을 바꾸는 기도*, 116-121.

124) Ibid., 116.

되는 양상이다. 성경을 다른 잡다한 신화들과 같은 수준의 경전으로 비하시키고 성경적인 사상을 이교적인 사상과 짜 맞추어 억지 해석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사설도 나온다. 모든 병이 귀신에게서 기인한 것이므로 의학적인 처치와 치료들 불신앙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오직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극단론적인 귀신론이 이런 아류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처럼 영적 도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입장이 다양하다. 그러나 한 가지 제한을 들 것은 본 논문은 영적 도해의 옳고 그름이나 효용가치를 논하는 논문은 아니다.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영적 도해들 이용해서 지역을 분석하고 중보기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도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영적 도해 전부들 수용한다기보다는 영적 도해라는 개념에서 긍정적이고 또한 중보기도에 시너지들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여 이것으로 교회와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에 적용하고자 한다. 교회성장학파들을 중심으로 이론화된 중보기도와 영적도해의 방법론을 채용하되 지역분석의 수단으로 제한하여 사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통해 지역의 상황과 영적인 상황의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라. 영적 도해에 의한 지역 분석

대구 지역에 대해 대구의 현황, 역사적 조사, 지리적 조사, 영적인 조사로 나누어 조사한 정영연은 그의 보고서에서 대구사람들에 대한 평가들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평가했다.<sup>125)</sup>

##### (1) 부정적인 부분

대구에 대한 평가 중 부정적인 부분을 꼽자면 대표적으로 보수적, 폐쇄적, 배타적, 권위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대처함이 느리고 역사를 통해 보건데 대구들 중심으로 지역감정이 조장되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대구는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곳으로 악명이 높다. 이것을 소위 '대구병'이라고 하는데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젯거리가 되는 대형 참사가 대구에서 일어났다. 근자에 서문시장 화재로 통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뿐 아니라 수많은 서민들

125) 정영연, *대구의 현황* (대구: 도시를 위한 연합중보기도모임, 2008), 26-27

의 희망을 꺾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대구를 ‘사고도시’로 각인시킨 것은 1995년 4월 28일 발생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전동차 방화 사건이다.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사망자 101명, 부상자 202명을 일으켰고, 중앙로역 전동차 방화 사건은 사망자만 무려 191명에 이르는 초대형 참사이다. 1863년 영국 런던에서 지하철이 처음 개통된 뒤 140여 년의 세계 지하철 역사에서 100명 이상 사망자를 낸 3대 참사 가운데 2건이 대구에서 발생한 셈이다. 대구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안전 불감증과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불거진 설마 의식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구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구에서 재난이 끊이질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한 사회학자는 ‘대구’의 정치적 단일 지배구조와 정치·행정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지역사회를 경직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10여 년 가까이 한나라당 간판만 달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될 정도였으니, 대구 사회가 긴장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홍덕률은 “대구 정치권과 주류사회가 일당에 의한 장기독재와 비판과 견제가 부재한 기형적 구조로 고착됐기 때문에 순환·대사·경쟁·견제·상호비판이나 교체가 없었고, 지역사회가 젊음이나 혁신을 누릴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엄청난 재난사고가 일어나도 정치적 일당 지배구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았습시다. 게다가 지역경제마저 어려워니 의기소침하게 되고 최소한의 긴장감마저 풀려 사고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 홍원식은 현재 대구가 처한 현실을 ‘대구병’으로 규정했다.

대구는 지금 대구病을 앓고 있어요. 다양성의 부족으로 대화가 끊긴 채 스스로 배타와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가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지는 않은지 반문해 봐야 합니다. 대구는 보수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하고 제대로 된 보수인지, 혹은 수구는 아닌지,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대구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수십 년간 공적 합리성이 결여된 채 연줄에 기대 왔어요. 내용을 못 채우고 생산적 비판도, 포용도 없이 「남탓」만 하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조선시대 영남 남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집권할 때는 마구 누리지만, 실권하면 달아 버리는 습성 말

입니다.

그에 따르면 대구병은 제3공화국에서 시작돼 집권의식과 소중앙주의에 빠진 뒤 5, 6공화국을 거치면서 더욱 굳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조차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비판적으로 돌아보지 않아 대구의 의식·생각이 성장을 멈춰 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사적 결단이 아니라 지식인과 학(學)·관(官)·계(財界) 사람이 합심해 혁신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기에 이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였고 거기에 대구·경북 사람들이 편승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구지역 출신 일부 인사들이 권력의 핵심과 결탁해서 적지 않은 부와 권력의 특혜를 누림으로써 대구 사람 전체가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만들었다. 즉 군부세력이 대구·경북지역의 사람들을 인적 토대로 활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대구 사람들보다는 경북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경북의 중심 혹은 대표라는 것 때문에 대구 사람이 독재적이고 독선적이며 기득권세력으로 오해받고 있는 면이 많다.

과거 역사를 볼 때 대구 사람들은 결코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조선 후기 당파가 치열할 때 정구 문하의 대구 유림들은 낙동강을 경계로 나뉘어진 남인과 북인을 융합하는 역할을 하였고 영남사림과 중앙정부들 조절하는 역할을 다했다. 또한 해방이후 좌익과 우익이 서로 나뉘어 전국이 다들 때에도 대구 지역만은 연합을 이루어 낸 곳이다. 또한 달성 서씨가 대구 시민을 위하여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중앙정부에 내어준 일이며 국채보상운동, 10월 사건, 2·28 학생운동 등을 볼 때 대구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서 편히 살려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된 반민족적 지역감정에 멋모르고 휘말려 들어서서는 곤란하다.

## (2) 긍정적인 부분

지형적으로 대구는 분지로 둘러싸여 활동 영역이 좁아 단시간에 이동이 유리하고 영남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로 왕래가 용이하다. 자료에 의하면 3세기경

별써 대구 지역의 토기가 고령 지역의 토기와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것은 이곳에 위치해 번영하던 달구벌국이 필요에 따라서는 경주의 사로국, 김해의 가락국과 교역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sup>126)</sup>

또한 도심의 조경이 잘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무더운 내륙 온도들 조금 낮추어 준다. 본래 대구는 흑한과 흑서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근자에 와서 정책적으로 나무들 많이 심으므로 전국 7대 도시 중 1인당 공원면적 1위의 도시가 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교육열이 높아서 각계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민의 성품상으로는 한번 결심된 일에 대하여는 꾸준히 실행하고 좀처럼 뜻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비록 새로운 문화들 쉽사리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수용하자마자 강력한 포용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이들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 예들 신라인의 불교 수용이나 가야국의 병합 과정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성, 포용성은 대체로 잠재되어 겉으로는 잘 표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대구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의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팔공산-대덕산-성서공단의 삼각형구도가 대구를 묶고 있으며, 우리는 이 구도를 직시해야 한다. 먼저 북쪽 팔공산과 남쪽의 대덕산-앞산-법리산-대덕산 산지에는 많은 사찰들이 있어 불교의 뿌리가 있으며, 서쪽 공단지역은 성서-서대구 비산동-계3공단이 일렬로 나열되어 인종 차별, 착취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구 지역은 점술, 사창가, 유교, 그리고 불교 포교의 중심지가 있다.

대구 구별로 불교의 영이 강한 곳은 남구와 동구이고 샤머니즘의 강한 곳은 중구, 남구, 동구이며 술집과 퇴폐향락이 많은 곳은 중구이고, 모텔과 여관이 밀집해있어 음란함이 심한 지역은 서구청 앞, 대구역과 동대구역 근처, 대명동 계대 근처, 영남대학병원 사거리 근처, 수성구 황금동 일대, 팔공산 일대 등이다.<sup>127)</sup> 극장이나 유흥업소, 매춘지역이 밀집해있는 곳은 중구 지역이다. 이곳은 또한 점, 주술, 우상숭배 등

126) 최정환, *대구의 정신을 찾기 위한 대구향토사 조사연구* (대구: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29-30.

127) 문경아 외, *대구 영적 도해 보고서*, 16.

하나님께서 매우 가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구에는 유교, 불교의 세력이 강하고 산들로 둘러싸여 사람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며 또한 경북도청과 여러 구청이 시청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대구의 권위의 견고한 진이며 지리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 제 2 절 봉덕교회의 성장 역사

### 1. 교회 연혁 및 현황

대한 예수교 장로회 봉덕교회는 1950년 8월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봉교회(이상근 목사)에서 확장 주일 학교를 봉덕동에 설립하였다. 1951년 10월 9일 봉덕교회들 봉덕 2동 945번지의 14평 건물에서 교인 19명이 회집하여 설립하였다(김광수 목사). 1954년 10월 9일 봉덕교회는 현 위치인 봉덕 2동 927-6의 대지에 60평의 신축 예배당을 헌당하였다. 또한 1968년 12월 31일 봉덕교회는 가창면 주동 산 207-9의 4,100평을 교회묘지로 매입하였다. 1969년 9월 5일 현 위치에 있는 교회들 40평 증축하여 헌당하였다. 1976년 4월 22일 현 위치 대지 475평에 신축 예배당을 기공하였다. 그리고 1977년 11월 30일 지하 1층, 지상 4층, 총 건평 432평에 예배당을 완공하였다. 1977년 12월 30일 목사관 31평을 완공하였다.

1993년 3월 31일에 교육관 232평을 신축하고 헌당하였다. 1999년 2월 5일에 남구 봉덕동 1141번지에 소재한 효성타운 201동 802호를 목사관으로 구입하였다. 2000년 8월 7일에 봉덕2동 926-8의 대지 67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편성하고 2001년 10월 14일에 설립 5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2002년 1월 14일 봉덕 2동 925-1의 대지 52평을 매입하였다.

2002년 11월 7일 봉덕2동 927-4번지의 건물을 구입(대지 97평, 연건평 144평, 지하 1층, 지상 3층)하여 리모델링 후에 쉼터 및 제 2교육관과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3년 1월 8일 교회 대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당 해 9월 9일 대예배당에 입당을 하였다. 당해 9월 14일 쉼터(꿈나눔터)를 완공하였다.



## 2. 교회의 목회 방향

봉덕교회는 ‘제자되어 제자삼는 교회’라는 영구표어 아래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봉덕교회의 목회현장을 분석하고 추구 하는 바 목회 방향을 제시 할 것이다. 전체 교회들이 이끄는 목회철학과 운영되고 있는 조직, 교육 분야의 여러 곳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목회리더십의 입장에서 봉덕교회의 현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가. 목회철학

목회철학은 교회가 지향하는 정신이다.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목적에 대해 기술하여 모든 부서가 각 부서의 특수성을 초월해서 추구해야하는 뜻대이다. 봉덕교회는 선언문을 통해 전체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목회철학과 목회전략을 두어 구체화하였다.

#### (1) 봉덕교회 선언문

봉덕교회의 목회철학의 핵심은 교회의 선언에 잘 나타나있다. ‘봉덕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교제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온 땅에 빛을 발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이다.’

#### (2) 목회 철학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들을 위한 목회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한 목회로 해외선교를 통해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룬다. 셋째, 내일을 위하여 교육하는 교회들을 위한 목회로 말씀중심의 교육목회들을 통해 양육을 체계화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균형 잡힌 천국일꾼을 양육한다.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어 교

회와 시대들 책임지는 미래적 일꾼들이 되게 한다. 넷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들 위한 목회로 전도들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지역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다섯째,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교회들 위한 목회로 기도의 훈련과 체질화들 통해 신앙의 야성을 키우며 체험적인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고 섬기는 성도로 양육한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교회들 위한 목회로 서로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들 따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과 다스리심이 온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교회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는 빛을 발하게 한다.

### (3) 봉덕교회의 목회전략

첫째, 불신자들 전도하여 신자가 되게 한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4장 19절, 로마서 1장 16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불신자들 전도하는 일이 교회에 맡겨진 절대적인 사명이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전략을 세웠다.

둘째, 신자들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 이는 성경말씀 마태복음 28장 19-20절, 에베소서 4장 11-16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몸 안에서 기능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양육이 필요하다. 봉사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하여 훈련되어야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셋째, 은사대로 사역하여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세운다. 이는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31절, 로마서 12장 3-8절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 가지고 있다(고전 7:7). 어느 그리스도인도 모든 은사들 다 받지는 않았다(고전 12:27-30). 받은 은사들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넷째,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과 성경적인 교회들 재생산하여 하나님 나라들 확장한다. 이는 성경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들 재생산한다. 또한 재생산의 비전을 가진 성경적인 교회들 재생산한다. 이들 통해 하나님 나라들 확장하고 실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 나. 교회 조직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들 모델로 삼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들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은 봉덕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신실하게 감당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직회, 위원회, 자치기관 등과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다(<표 1> 봉덕교회의 조직표 참조).

기관장회의는 각 자치기관장들이 매월 둘째 주일 오후예배가 마친 다음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회적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하거나, 전교회 적인 행사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나눔으로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협의기구이다. 담당부서장들은 이 모임을 통해 해당부서의 업무 뿐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부서가 이 일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가 점점 다변화되고 결계선의 단순화를 꾀해서 민첩성을 극대화 하는 반면에 교회는 예전의 조직 체계를 유지함으로 효율 면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제직회 부서의 기능적 동폐합 문제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의 정책들을 개발하고 연구할 교회발전위원회(가칭)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 다. 교회 교육

봉덕교회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영적 지도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학교 교육이 무너져 청소년들이 좌표를 잃고 있으며 교회 교육도 여건과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교회는 교회교육과 가정교육이 하나가 되는 시스템 교육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회 교육여건을 미래지향적으로 구비하여 균형 잡힌 신앙과 인격을 교육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일학교 각 부서와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 예배

## (가) 주일예배

찬양, 말씀, 특별활동(찬양대회, 성구암송대회, 레크리에이션)과 소그룹 활동인 분반공부, 각종 축하 잔치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절기예배

신년 예배, 고난 주일, 부활 주일, 어린이 주일, 아버지 주일, 스승의 주일, 추수 감사절, 성탄절이 있다.

## (다) 초청 예배

분기별로 친구 초청 특별전도 집회를 드리고 있다.

## (2) 교육

유치부에서 중등부까지는 총회공과들 통해 연계성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고등부와 다니엘부(대학부)는 자체적으로 부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 봉사

예배안내와 매 주 토요일마다 교육부실을 청소함으로써 자립심을 키우고 있다. 부서에서는 성탄절에 '애망원'을 방문하며, 월 1회씩 봉덕교회가 운영하는 경산 외국인 근로자 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

## (4) 교육위원회

주일학교 교육을 전담하는 교역자들과 담당부장, 부감의 협의체로서, 산하의 각 부서가 사역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사들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정교육과의 연계들 위해 부모교육의 기회들 제공하는 등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주일학교 교육사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5) 교육부서

유치부는 0-7세 어린이, 유년부는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 초등부는 초등학교

교 4-6학년 어린이, 어린이부는 유치부-초등부 연령의 어린이, 중등부는 중학교 1-3학년 학생, 고등부는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다니엘부는 만 19세-만 25세 청년으로 구성되어있다.

#### (6) 평신도 훈련원

봉덕교회의 평신도 교육은 새 가족 정착과 장년공부, 그리고 기도에 중점을 둔 영성훈련으로 이뤄져있다. 먼저 훈련의 목적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평신도들을 무장시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제자들 만드는데 있다. 따라서 본 교회는 이러한 평신도들을 세우기 위해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을 결코 방목하지 않는다. '제자들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성도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훈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가) 새 가족반

봉덕교회는 처음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 새 가족 양육부에서 맡아서 교육한다. 6주 과정으로 양육위원들이 1:1로 강의하는데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좋은 교회에 대한 비전,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한 안내가 제시된다. 이 시간에 참석한 성도들은 봉덕교회의 목회 방향과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받으며 본인이 제자로 훈련받을 것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진다.

##### (나) 장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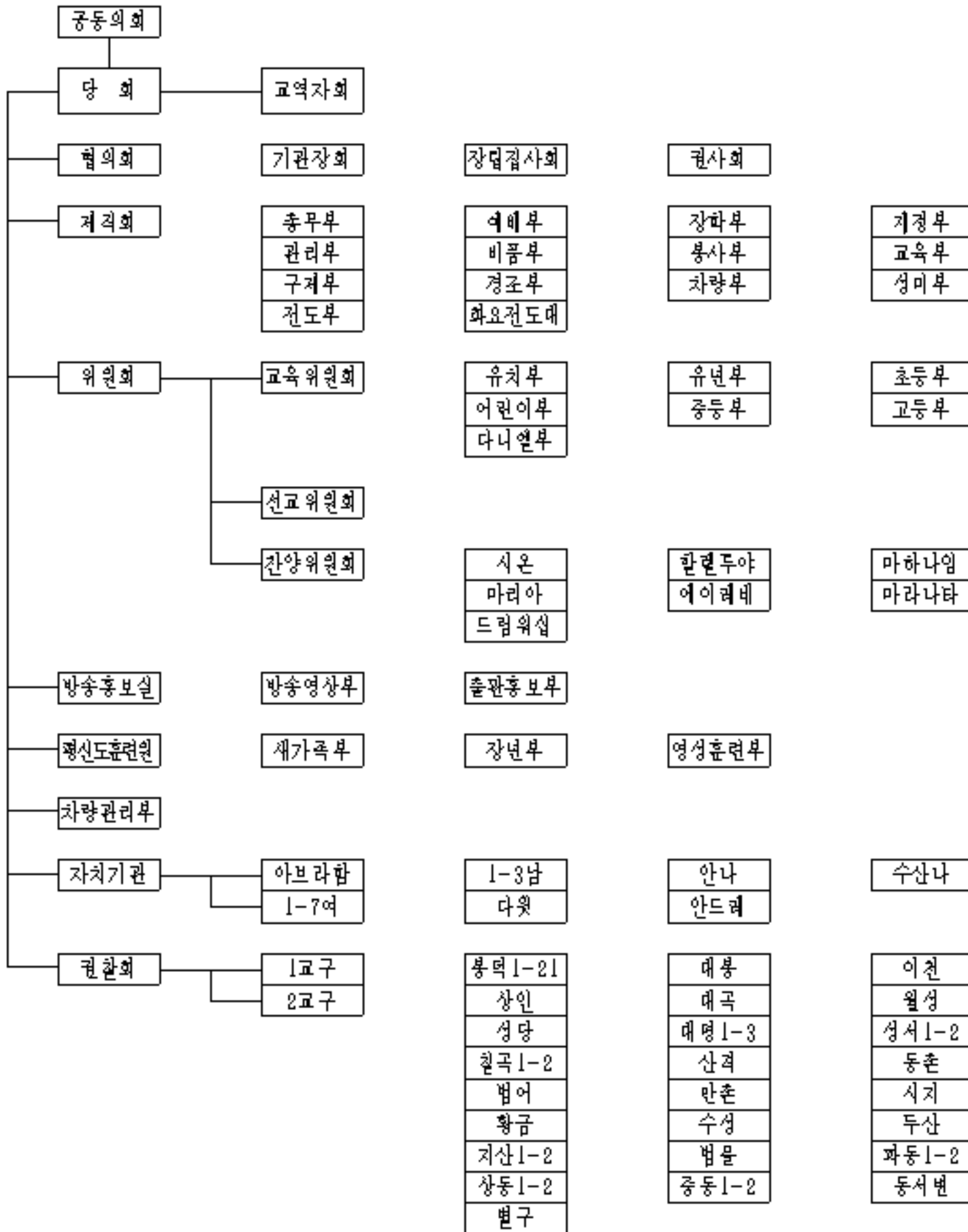
장년부 과정은 총회에서 나온 장년공과를 기초하되 성도로서의 기본 소양과 덕목을 가르쳐 올바른 교회 구성원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간을 1부와 2부 중간 시간을 이용하여 최대한 참석이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 (다) 영성훈련부

영성훈련부는 다른 교회에 비해 봉덕교회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자랑거리인 사역이다. 영성훈련부는 크게 릴레이 기도, 화요 합심기도, 기도 정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분야의 자세한 상황은 5장에서 소개할 것이다. 영성훈련부가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평신도 교육이 이론 중심이나 사유 중심의 교육으로 흘렀다면 이 교육은 기도부분에 집중하여 직접 기도의 분량을 채워감으로 현장에서 응답도 받고, 또한 같이 그 은혜를 나눔으로 통해 교회 전체에 영적인 집중력을 키워주고 그런 사

이에 각자의 영적인 성숙도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는 신앙체험 교육이다.

<표 1> 봉덕교회의 조직표



### 3. 교회의 성장 역사

봉덕교회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1950년에 대봉교회에서 확장주일학교로 나와서 태동되었다. 60년 가까운 세월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성급한 인간의 판단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실수와 약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대승적인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남구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서의 위용을 갖추었으며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수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사역에 집중해왔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현장이 있는 기도들 원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년(2006년)부터 D-12라는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여 5개의 cell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2주 과정을 마치고 태신자로 작성하고 기도해온 영혼을 예배로 초대할 때에 그들만이 아니라 나머지 성도들에게도 태신자 작성과 초대의 형식을 통해 같은 날 영혼추수에 집중하도록 기획하였다. 그 결과는 예상 밖의 열매였다. 2006년 평균 출석인원이 800명대 초반이었으나 영혼추수주일이었던 12월 4일 당일에만 250여명의 새 가족이 교회들 처음 방문했고, 그 다음 주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새 가족이 들어오고 정착되어져가고 있다. 전도되어오는 숫자도 그 이전에 비해 괄목할 만하게 증가했고, 정착률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현재는 새 가족부실이 좁아서 다른 공간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올해 안으로 출석인원 1000명을 넘기는 것은 무난하리라 예상된다. 그 동안 기도로 영적인 에너지가 차있던 차에 이 영적인 에너지들 발산할 기회에 다들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07년도에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교회의 최우선과제로 잡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표어 하에 모든 일을 영혼 구원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 작년 5개였던 cell도 올해는 12개로 증가하여 시작하였고 이 추세로 나간다면 향후 3, 4년 이내로 전 성도들이 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교회 인근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오래된 가옥들이 조만간 새로운 아파트로 대체될 것이다.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때를 맞춰 지역의 분위기도 새롭게 바뀌는 것은 봉덕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하나님의 신호 같은 것이라 확신한다. 지역의 주거특성상 노

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청장년층의 대량유입이 예상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는 봉덕교회에게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기회들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완비되어야 한다. 안으로는 더욱 내실 있는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동시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여 달려감으로 예비된 영혼이 왔을 때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교회에서 거대한 영적인 흐름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봉덕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임으로,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의 쉽고 어려움보다는 우선적인 문제이다. 설교와 성령 사역을 통해 기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공유하는 데 힘을 쓰고, 그래서 새로운 청장년을 품으면서 동시에 기존의 성도들 간수하지 못하는 미완의 부흥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깃발 아래서 모두들 아우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봉덕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균형감을 잃지 않고 나갈 것이다. 현장이 뜨겁고 분주할수록 기도의 끈방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이루어질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계기로 복음 사역 역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제 5 장

### 봉덕교회의 중보기도 사역

봉덕교회에 있어서 중보기도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장에서 현재 봉덕교회에서 실시중인 중보기도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한 본 교회의 사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자 한다. 또한 필자의 입장에서 사역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제 1 절 중보기도에 관한 실제

##### 1. 중보기도 프로그램의 현황

봉덕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보기도사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화요중보기도모임이고 둘째는 릴레이 중보기도사역이며 셋째는 기도정병단사역이다. 각각의 사역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가. 화요 중보기도모임

화요 중보기도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모임을 가진다. 우선 30분 정도 전체가 예배를 드리고 팀별로 2시간 동안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특히 팀별로 기도할 때는 팀마다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써 많은 기도응답의 보고를 듣고 있다. 각 팀은 고유한 영역에서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그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표 2>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의 팀별 기도제목이다. 각 팀의 팀장은 계속해서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릴레이 기도나 기도정병단 사

역의 병행을 통해 더욱 기도의 제목이 풍성하게 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하게 함으로 늘 같은 기도 제목의 반복을 통한 매너리즘을 없애도록 하였다.

<표 2> 화요 중보기도모임 팀별 기도 방향

화요 중보기도모임 팀별 기도 방향			
팀 명	팀 장	기도 방향	기도 내용
기드온	정동사	넛시팀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들 입도록
수산나	이옥년	미션(파송 및 협력선교사)	선교사들을 위해
에스더	서정호	교회재정 및 기도사역을 위해	기도정병단과 화요중보기도모임과 릴레이 중보기도들 위해 (교회 내 중보기도사역을 위해)
샤론	김영희C	레위팀	담임목사와 교역자들 위해
헵시바	이광순	라파팀	환자들을 위해
십자가	배명순 이말순	새해계획 및 교회	새해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
글로리아	최능자 문복자	미션	선교사들을 위해
한나	박경숙 신연실	라파팀	환자들을 위해
주제에 맞게 기도하신 후 추가 기도제목은 인도자에 의해서 달라 질수 있습니다.			
도시들 위한 연합기도모임을 위해서			

#### 나. 릴레이 중보기도사역

릴레이 중보기도사역은 2004년도부터 1기가 시작되어 4개월을 한 기간으로 2007년 1월 현재 10기까지 사역이 지속되고 있다. 릴레이 중보기도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씩 릴레이 중보기도자가 정해진 기도제목에 따라 중보기도를 담당하게 된다. 효과적인 릴레이 중보기도사역을 위해 교회 내에 중보기도실을 만들었으며 중보기도제목은 긴급기도제목, 교회들 위한 기도제목, 담임목사들 위한 기도제목, 선교사들 위한 기도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별히 긴급기도제목은 교회 내에 중보기도함을 설치해서 모든 교우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릴레이 중보기도사역이 마칠 때, 릴레이 중보기도자 위로회를 가지면서 간증과

기도응답에 대한 보고를 나누는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을 통해 개인과 교회 더 나아가 선교사역에 풍성한 기도응답을 확인하면서 릴레이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봉덕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릴레이 중보기도의 편성과 기도응답에 대한 예는 아래 <표 3>과 같다. 10기 릴레이 중보기도 헌신자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작하여 4월 30일까지 4개월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된다.

<표 3> 10기 릴레이 중보기도 헌신자 명단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9-10	박경숙	김영희C	유부돌	정금옥	이옥년	이용십
10-11	송정분	화요 중보기도 모임	최갑순	조부연	문화자	김도자
11-12	서정효		부교역자사 모	남영옥	이유현	김혜순
오후 12-1	김정혜		김정자	조화자	박지수	이옥화
1-2	추태순	조길자	김봉기	조명숙	이순옥	윤순이A
2-3	정봉금	이광순	윤순이B	김선일	송정윤	김정숙
3-4	배영숙	고순예	김춘녀	김인희	박복선	이희춘
4-5	신영숙	이옥화	교역자	이규자	이희순	이상철
5-6	박남희	오길수	이영란	권경란	신효분	조군자
6-7	최성환	조태선	권명숙	문복자	이강화	권태금
7-8	조경순	배경희	수요예배	김월란	김경애	김복희
8-9	김덕수	김구자	우석자	서성옥	신수옥	송이숙

<표 4>는 2006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9기 릴레이 중보기도사역에 기도카드를 제출하여 헌신자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들은 개인의 신앙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성도의 어려움이나 불신 이웃의 긴급한 요청, 봉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나 선교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특정인이나 기관에 관계없는 국가적인 일이나 세계정세에 관한 기도 제목은 릴레이 중보기도를 섬기는 교역자와 담당자에 의해서 수시로 기도 제목이 추가되고 있다.

&lt;표 4&gt; 개인 기도에 대한 응답

월	기도응답자 명단
9월(13명)	윤종규, 이죽자, 박성용, 지근철, 배청자, 추병수, 이창근, 박향순, 조광자, 주기하, 이정화, 손명수, 김은정
10월(9명)	권규흠, 배재봉, 김명희, 석춘미, 추은선, 윤명호, 이상신, 임섭이, 이태련, 김유분, 이충열
11월(5명)	김지동, 한만상, 오완수, 이재훈, 김남혁
12월(6명)	홍지혜, 유부물, 이재훈, 김구자, 권태금, 김월란

#### 다. 기도정병단 사역

기도정병단 사역은 주일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사역이다. 기도정병단의 구성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더들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된다. 기도정병단에서 예배와 예배자 그리고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예배의 출석률이 높아지고 있다.

## 2. 중보기도 훈련방법

### 가. 집중영성훈련

중보기도사역을 위해 우선 전체 교인을 상대로 2003년 9월부터 집중영성훈련을 실시해 왔다. 영성훈련의 내용으로는 묵상, 예배, 중보기도, 성령론, 제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적 치유이다.

### 나. 중보기도학교

2004년도 1기 릴레이 중보기도를 앞두고 중보기도자를 훈련할 때는 중보기도에 관한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후 집중영성훈련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영성훈련을 통해 삶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평신도들이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체계적인 중보기도훈련이 필요하게 되어 2006년 3-5월 10주간 중보기도학교를 실시하게 되었다.

1기 중보기도학교는 지금까지 봉덕교회 집중영성훈련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중보기도학교의 내용은 예배, 중보기도, 세계관과 영적 전쟁, 영적 도해와 영적 전쟁, 정체성과 아버지의 사랑, 성령론, 중보기도자의 권리포기와 비전, 은사회복과 치유 등으로 강의와 소그룹 토의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땅밟기 사역을 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균형 잡힌 중보기도학교가 되도록 했다.

### 3. 중보기도를 통한 변화

#### 가. 성도의 변화

토레이는 진정한 부흥에 대해 언급하면서 진정한 부흥의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우선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28)</sup> 영혼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가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애정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 사역자들은 자기의 사역에 있어 새로운 자유와 설교의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사역자 뿐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까지 확장된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사역자와 동일하게 영혼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오면 소수의 사역자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적인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중보기도사역을 봉덕교회에서 실시해 온 지난 5년여 동안에 봉덕교회의 영적인 수위도 많이 올라갔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성도들의 변화이다. 집중영성훈련과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적인 치유를 체험하면서 내면의 쓴 뿌리와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로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 나. 교회의 변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처절하며 깊고 보편적이면서도 참된 부흥이다.<sup>129)</sup> 이러한 교회의 부흥은 실업계에서도, 국가나 정부, 경제계

128) Torrey, *기도의 능력*, 246-251.

129) Ibid., 244.

에도 필요하다. 그만큼 현 시대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아슬아슬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인간의 형체들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뜻을 알리시고 교회들 탄생시키셨다. 이 부흥은 인간의 혁명이 아닌 하나님께 기원을 두는 거룩한 혁명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대적 요청 가운데 본 교회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중보기도사역은 성도 개개인의 변화들 뛰어 넘어서 교회의 영적인 변화들 가져왔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과정에 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보자면 무엇보다도 예배의 감격이 뜨거워지게 되었다. 또 중보기도사역에 실제적인 응답이 간증으로 이어지면서 릴레이 중보기도사역이 봉독교회의 핵심사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영성훈련을 통해 말씀훈련과 성령사역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론에만 강한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도 열린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

#### 4. 중보기도들 통한 활성화 방향

##### 가. 대구 경북지역 연합 중보기도사역

존 도슨은 현대 도시에 대해 평가하기를 과거에는 도시가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점점 기능적 구조로 바뀌어감에 따라 오히려 사람이 도시에 의해 소외당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고독감, 무능력, 상실감, 의존성, 거절, 가치관 혼동 같은 혼란을 겪게 되고 헛된 희망에 속음으로 대부분 이상승배자로 전락한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우상이란 하나님의 대치하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들 모방하여 거짓 종교성을 드러내고, 성자 예수님을 대신하여 영웅이나 구원자들 내세우고, 성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는 조직이나 기관을 내세우는 것이다.<sup>130)</sup>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헛된 것으로 일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영적인 갈증은 점점 더 심해가고 그들의 영혼은 고사해간다.

대구 역시 이러한 분석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중보기도는 현실을 도피하

130) Dawson,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49-54.

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진리와 어그러져가는 현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럴 때 중보자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경험한다.<sup>131)</sup> 그 도시들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시들 가슴으로 안고 도시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봉덕교회 중보기도사역은 개교회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교회에 중보기도사역으로 확대되었다. 그것이 연합중보기도모임이다. 연합중보기도모임은 초기에는 지역을 향한 안타까움을 공유하는 몇몇 목회자들 중심으로 한 달에 한번 기도모임으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대구 경북지역 여러 교회의 평신도들까지 확대해서 2005년 9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봉덕교회에서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연합중보기도모임은 봉덕, 드림, 성덕, 대봉, 서문, 은혜로, 칠성교회 이외에 많은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과 나라와 민족 나아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또한 이 모임은 초창기에는 목회자들이 주도가 되었으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권위의 위임이 이뤄져 지금은 목회자들이 전체 지도의 역할을 하고 실무적인 사역은 평신도들이 진행하고 있다. 집회시에 찬양이나 안내, 영상 작업, 식사봉사까지 점점 평신도들의 참여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중보기도자들 세우는 중보기도학교 확대

2007년 3-5월까지 2기 중보기도학교를 지역교회들 위해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다. 그 이유는 중보기도사역은 개교회사역이 아니라 지역연합사역으로 이어질 때, 놀라운 영적 추수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 다. 평신도지도자 중심의 사역

지금 시대는 헌신된 평신도들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지나치게 교역자 중심의 사역을 감당해 왔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수동적인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옥한흠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개신교가 교직 제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생긴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의 계급의식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과 사회생

131) Ibid., 190.

활을 따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키워 주었고 교역자의 생활에 비해 자신들의 생활은 덜 거룩하다는 열등감을 평신도에게 심어주었다.<sup>132)</sup>

봉덕교회 중보기도사역은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다. 평신도들이 소그룹 기도회나 기도정병단 기도회를 직접 인도한다. 이렇게 평신도들에게 사역의 현장을 공유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영적인 생동감을 얻고 있다.

## 제 2 절 중보기도 사역팀 운영에 대한 제언

### 1. 사역팀 운영의 유의

현재 봉덕교회에서는 3방면으로 사역팀이 운영되고 있다. 화요 중보기도모임, 릴레이 기도회, 기도정병단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역팀을 통해 전 성도가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 참여하고 있다. 화요중보기도모임과 기도정병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따로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릴레이 기도회는 4개월마다 한 번씩 수료식을 하고 새로운 중보기도자를 신청 받고 있다. 교회에 공식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본당 로비에 빈 용지가 부착되면 새로운 중보기도자들이 자원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거의 그 날 하루 만에 채워진다. 또한 새로이 릴레이 중보기도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에 하던 사람이 수료식을 끝내고 다시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보기도의 맛을 아는 것이다. 다양한 중보기도 사역팀을 운영함으로써 이처럼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유의가 발생한다.

첫째,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 기도의 현장은 가끔씩 신자들에게 호의적이 아니다. 가끔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sup>133)</sup> 예수님 역시 여유롭게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님은 복음서들 통해 금방 알 수 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하루 사역에 대해 나오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다.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니 하루가 저물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와보니 거기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봉사는 깊은 밤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성경은 그 다음 예수님

132)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84), 49.

133) 김남준, *기도마스터*. (서울: 규장, 1999), 77-78.



의 행적이 대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찍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막 1:35)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날도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가서서 함께 하셨다.

이것은 오늘날의 헌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보통 사람들이기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끝없이 밀려온다. 환경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헌신하는 자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도전을 받게 된다. 일종의 영적인 시너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팀 사역을 통해 기도의 능력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가 되는 것이다.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점점 더 깊고 넓은 기도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통해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성도가 능동적이고 저력 있는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게 된다.

둘째, 목회자의 든든한 동역자가 생긴다. 사실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로 통해 목회자는 중보기도하는 그 성도들 자기 목회의 동역자로 얻게 되는 셈이다.

셋째, 교회 안에 바람직한 영적 분위기가 조성된다. 기도의 습관이 붙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넷째, 목회 전반에 협력을 통한 축복을 누린다. 목회자가 중보기도 사역팀과 동역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일종의 윈-윈이다. 목회 전반을 기도로 통해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력과 격려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 2. 사역팀 조직에 대한 제언

첫째, 목회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목회의 현장 일선에서 뛰는 목회자가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 목회자가 목회의 핵심 가치 가운데

데 기도들 인정하고, 특별히 중보기도자들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기도제목을 내놓기들 즐거워해야 한다. 바울 역시 서신서마다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도제목을 알려주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사역팀을 조직함에 있어 이미 모범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교회들 탐방해서 그들의 노하우들 배우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둘째, 평신도 지도자들 세워 동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사역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장과 임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도자들 평신도 가운데 세움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반쪽짜리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의 분량대로 일을 분담해서 함으로 서로들 더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된다.

셋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공급 없이 계속 소비적인 사역으로만 이어지면 기도하는 사역도 영적인 노동이 될 수가 있다. 이들을 더욱 더 온전하고 장성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한 연중 특별한 훈련을 실시함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각오와 사명감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제목을 받을지들 정해야 한다. 중보기도의 특성상 비밀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 조심스러운 제목이 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약속으로 알고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 부분은 중보기도 사역팀 전체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동시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안심하고 낼 수 있도록 분위기 뿐 만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이 적힌 기도카드들 여러 사람이 관리하는 것 보다 한 사람 혹은 소수의 몇 사람만이 관리하는 것도 궤중보자로 하여금 안심을 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기도요청함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시대에 맞게 홈페이지에 중보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도제목의 큰 방향은 [4. 중보기도 사역의 유형]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다섯째, 주의사항이 있다. 중보기도 사역은 매우 민감한 사역이다. 그래서 최대한 지혜롭게 또한 조심해야 한다. 중보기도 사역팀을 운영할 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많은 교회들이 사역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로한 권사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종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모

이니까 사역팀 훈련과 지도에도 이러한 점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나마 왔던 젊은 층의 사람도 다음 기간에는 아무래도 더 소극적이 되든지 관심을 뺄 것이다. 중보기도 사역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찬양팀을 젊은이들로 구성하고, 실무진에서 일하는 임원들도 젊은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그들도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중보기도 사역도 꺼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또한 사역팀들의 자기 관리가 안 되어서 오히려 교회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다. 기도가 자기 자랑이 되면 자기의 은혜 생활에도 지장 받을 뿐 아니라 사역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역팀은 그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그러니 사역팀원들은 기도 중에 신비로운 경험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인내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유사한 이야기지만 기도의 열심은 있지만 말씀과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 성경은 안 보고 그저 기도만 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아무래도 중보기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역의 일선에 있으므로 주목받기 쉬운 자리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 배우는데 힘을 써야 한다.

### 3. 중보기도사역의 절차

중보기도자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검해야할 조건이 있다. 우선 기도하는 삶을 갈망하고, 기도 사역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해야 한다. 또한 그 교회에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여야 하고, 교회에서 정해놓은 소정의 과정을 다 거치고 본인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연약한 자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는 서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어찌하든 중보기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괜한 시도들 했다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자신이 작성한 기도시간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키고, 또한 중보한 기도의 내용을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비밀을 보장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자들이 중보기도로 섬길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은 중보기도를 위해 약속한

시간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하고,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도 정확하게 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사무실이나 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옳다. 비록 부부시간일지라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는 기도들 시작하기 전에 우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중보기도실에 붙어있는 점검사항들을 하나하나 읽고 혹시나 하나님과 중보자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표 5>는 ‘중보기도실에서 한 시간 사용법’에 관한 것이다. 벽에 붙어있는 이 시간표를 보고 60분의 시간을 균형 있게 잘 할애하여서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기도자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5> 중보기도실에서 한 시간 사용법

기도시간	누적시간	기도제목	비고
5	5	묵상기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기도
5	10	자신과 가족을 위해	
5	15	긴급기도	환자, 긴급히 어려움에 처한 가정
10	25	일반 기도제목	성도들이 요청한 기도제목
10	35	교회 전체의 기도제목	부흥회, 특별집회, 특별기도제목 등등
5	40	한국과 세계의 위정자	
5	45	선교사님을 위해	
5	50	감사와 찬양의 기도	응답카드들 보고
10	60	기도전보카드 작성	기도 중 마음의 부담이 온 사람 위해

항목별로 정리되어있는 기도카드는 순서에 따라 하나씩 기도해 나간다. 기도카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비치되어있는 메모장에다가 고칠 내용을 적어 관리자가 볼 수 있게 해 놓는다.

#### 4. 중도기도 사역의 유형

중도기도를 시행하다 보면 중도기도 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일정한 범주가 있음을 곧 알 수 있다.

##### 가. 여덟 기둥(8 Mind Molders)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에서 '족속'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사람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문화적인 의미이다. 사람에게 복음은 전할 뿐 아니라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들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여덟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여덟 기둥'이라고 부른다.<sup>134)</sup> 이렇게 하면 기도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 (1) 정치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들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들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 비단 세속정치 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에도 동일한 원칙이 통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모범대로 계승이 되어지고 정치계에서 화해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 (2) 경제

경제계에 통하는 거짓과 편법들이 종식되고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토지정의가 이뤄져서 투기가 목적이 된 현재의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게 계속 되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이고 저주의 징조가 되는 것이다. 정직이 경제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기 자리들 다시 찾도록 기도해야 한다.

##### (3) 가정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또한 사회의 안전망이다. 부부가 깨어지면 결

134) 이광임, 그리스도인의 중도기도, 198.

과적으로 사회가 붕괴된다. 깨어진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가정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가정이 살아야 그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자라는 다음 세대까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 (4) 종교, 교회

교회들 위해서는 영적인 거룩함을 구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물질만능주의와 인본주의가 떠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거룩함이 곧 구분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재정 사용문제가 성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정책을 세우고 결정하는 당회들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타종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단들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우상숭배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 (5) 교육

학교 교육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한다.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헛된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한다. 교사들과 학원복음화들 위해 역시 기도해야 한다. 이 땅의 엄한 입시 제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획일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따라 미래를 준비해가는 시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션스쿨과 최근 대두되는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 (6) 언론

언론은 무엇보다 정직과 진실이 중요하다. 그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기 때문이다. 방송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함으로 문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 (7) 예술

예술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곳이다. 그러나 왜곡되고 타락된 인간성에 의해 예술

은 진실된 아름다움보다는 값싼 아름다움에 빠져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술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대작과 명작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도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 (8)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인간으로서 가장 교만하기 쉬운 부분이다. 우리의 삶에 편리를 줄 것으로 기대했던 과학 기술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삶이 황폐케 되고 파괴적으로 변질되었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 나. 아홉 개의 변방지역(9 Frontiers)

### (1) 공산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이다. 공산주의가 태동한지 한 세기도 되지 않아서 중주국은 스스로 그 헛된 사상을 포기했다. 그러나 아직 북한, 쿠바, 중국의 공산주의는 견고히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사상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나라들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지역이 이 사상에서 자유로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 (2) 이슬람권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독교 국가에 확산되는 이슬람의 세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지하드'라는 잘못된 교리로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기를 자원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역(逆)라마단 운동은 이 지역을 위한 효과적인 기도운동이다.

### (3) 불교권

동남아시아와 일본, 우리나라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다. 최근에 젊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포교하는 움직임인데 이것을 대적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 (4) 힌두교권

인도와 네팔 지역에 만연한 이 사상으로 신분의 차이를 정당화하고 학대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인도의 다신주의는 인도들 가난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견고하게 잡고 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 (5)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의 진가를 몰라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독교문화권이지만 믿지 않는 유럽권과 미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6) 대도시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대도시에 만연한 어둠들, 즉 마약과 성매매, 빈곤의 문제들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뿐 아니라 그러한 특수 분야에서 사역할 사역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한다.

#### (7) 미전도 종족

종족으로 본다면 아직 지구상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이 50%에 육박한다. 하루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도록 땅 끝까지 목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종족을 입양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행동을 통해 실질적인 미전도 종족의 전도들 힘쓰고 기도해야 한다.

#### (8) 소외되고 가난한 나라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에이즈나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간단한 치료들 받지 못해 죽음을 기다리는 일들이 조속히 끊어져야 한다. 세계적인 연합기구나 NGO등의 활동으로 이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받게 해야 하고 육의 빵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이기 위해 중보기도자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9) 세계의 작은 절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특별히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아동노동이나 성매매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 주로 10/40창에 집중되어 있는 이들이 굶주림과 사회적인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 제 6 장 결 론

이제까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보기도와 그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목회적 상황에 있어 중보 기도는 필수적이다. 중보기도 사역은 기도의 끈을 쥐게 함으로 성도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영적인 시너지들 통해 확장되는 사역이다. 또 전도들 비롯한 현장과 중보기도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면서(지원사역 같이)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도와주게 함으로 온 교회들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준다. 실제로 본 교회에서도 현장 전도로 섬기고 있는 전도대원들도 대부분 중보기도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보기도를 매개로 하나님께서 지역의 교회와 선교단체들 하나로 묶어주시는 역할을 하면서 광의적인 교회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고 지역을 위해 교회가 필요할 때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도 한다. 여타의 다른 모임들은 그들의 목적상 한계가 있지만 중보기도로 통해 모인 모임은 하나님의 명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추구해 나가기에 그 어떤 모임보다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본 논문을 통하여 그 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더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와 교회 연합,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향한 비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목회에 있어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 있는 중보기도 사역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부록

## 9기 릴레이 중보기도사역 보고

## □ 주요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보고

## (1) 담임목사들 위한 기도

## ① 긴급기도제목: 미국 부흥 집회일정(5월 30일~6월 14일)

1차 집회-후레노스 한인 연합 감리교회

2차 집회-오클랜드 한인 연합 감리교회

(응답: 말씀으로 많은 심령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았음 2주간의 집회들 가졌으나 건강한 몸으로 귀국하심)

## ② 긴급기도제목: C국 국제신학교 설립을 위한 강의

(일정: 7월 31일~8월 5일) 신학교 설립 예배와 강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응답: 말씀으로 신학생들이 은혜가 충만하였으며 10여명 되는 신학생들이 말씀과 설교의 귀한 훈련을 받게 되었음)

③ 일반기도제목: 담임목사님의 목회사역을 통해 지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며 열방을 향해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능력의 종이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 목사님의 열방을 향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음)

## (2) 교회들 위한 기도

① 기도정병단: 기도정병단의 기도들 통해 온 성도가 참 예배자로 나아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응답: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음)

②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 릴레이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응답: 환우들의 놀라운 치유역사가 일어나고 있음)

\*특별기도응답: 영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생명이 위독했던 서염광(중3)이가 긴급기도를 통해 3일 만에 회복하여 현재 건강한 몸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음.

③ 전교인 체육대회: 5월 5일에 열리는 전교인체육대회 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전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 5월 4일 저녁까지 오는 비가 대회 당일 좋은 날씨로 바뀌었음)

④ 특별축복새벽기도(주일학교 및 청년부서)

부서마다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여 담임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게 하옵소서.

(응답: 부서마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축복기도에 참여함)

⑤ 연합중보기도모임: 연합기도모임을 통하여 지교회와 열방이 하나가 되며 기도의 처소 봉덕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시고 대구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응답: 연합중보기도모임에 참여하는 교회가 확산되어가며 모이는 자들이 뜨거운 성령체험을 하고 있음)

(3) 선교사들 위한 기도

① 임\*\*선교사(I국-파송선교사)/

자궁근종수술이 잘 되어 건강을 회복하여 선교지로 떠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응답: 근종의 혹이 커서 힘들다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한 몸으로 선교지로 출국함)

② 안상혁 선교사(GBT-협력선교사)/

안압(녹내장)이 낮아지게 하셔서 눈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응답: 계속 1년간 기도한 결과 2006년 7월에 선교훈련을 받기 위해 한국에 귀국하였는데 병원 치료 없이 녹내장이 완치되었다고 함)

③ 박\*\* 선교사(M국-협력선교사)/

1개월간 열리는 (7월) 중보기도학교에 많은 사역자와 학생들을 보내시어 몽골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응답: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말씀과 강의로 도전을 받았음)

## ④ 진\*\* 선교사(T국-협력선교사)/

태권도사역을 위하여 승합차들 구할 수 있도록 물질의 후원자들 붙여주옵소서  
(응답: 긴급기도 10일 만에 승합차들 구하였다고 연락이 왔음).

## ⑤ 최도웅 선교사(인도-협력선교사)/

2006년 6월에 완공된 수련원에 장, 단기 선교사들과 한국의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청장년들의 집회 장소가 되어 인도 땅을 깨워 주옵소서.

(응답: 긴급기도 7일 만에 한국의 지구촌교회들 비롯해 많은 선교사역자들이 참석하였음)

## ⑥ 신길선 장로(C국 예비선교사)/

C국 국제 신학교 설립예배들 준비하러 가는 장로님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C국의 복음의 문을 여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학생을 보내 주옵소서.

(응답: 십 여 명의 목회자 및 신학생[C국 교회사역자]들이 입학하여 은혜 가운데 설립예배들 마쳤으며 뜨거운 폭염 중에도 잘 감당하시고 서성욱 권사님과 무사히 귀국함)

## 참고 문헌

## 1. 국내서적

- 강명호. "교회성장학파의 영적 전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2000.
- 강준민. *강령기도의 능력*. 서울: 두란노, 2002.
- 구자원. *대적을 바로 알자*. 서울: 은혜, 1999.
- 김강철. "실천적 의미에서 본 중보기도."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 신학대학원, 2001.
- 김경미. "중보적 기도들 통한 도시선교 리서치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2004.
- 김남준. *기도마스터*. 서울: 규장, 1999.
- 김지현. "효과적인 중보기도들 위한 제안." 석사학위논문, 목원대 신학대학원, 2005.
- 명성훈.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 전략 52가지*. 서울: 국민일보사, 1999.
- 문경아 외. *대구 영적 도해 보고서*. 대구: 2003.
- 박원영. *여호수아 프로젝트: 지역사회를 점령하는 중보기도*. 강의안. 예수님의 중보기도사역학교, 2000.
-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2 교의신학 신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 안길순. "중보기도 사역과 교회 성장."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원, 1998.
- 옥한흠. *평신도들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84.
- 유정안. "영적 전쟁을 통한 교회 성장." 석사학위논문, 한세대 신학대학원, 1999.
- 이광임.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 서울: 예수전도단, 2004.
- 이동원. *세상을 끌어안은 중보기도 파티*. 서울: 두란노, 2005.
- 이인호. "중보기도의 통치권." 강의안. 예수님의 중보기도사역학교, 2000.
- 이장석.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도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실천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 신학대학원, 2000.
- 이정현. *중보기도*. 서울: 베드로서원, 1998.
- 이진.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시행방안." 석사학위논문, 목원대 신학대학원,

2002.

- 전용복. *생명력 있는 기도 중보기도*. 서울: 두란노, 2000.
- 정영연. *대구의 영적 조사*. 대구: 도시들 위한 연합중보기도모임, 2006.
- \_\_\_\_\_. *대구의 현황*. 대구: 도시들 위한 연합중보기도모임, 2006.
- 채두병. "효과적인 도시목회에 관한 전략연구: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들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1998.
- 채은수. *선교학원론*. 서울: 총신대학교, 1998.
- 최기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서울: 성운, 1971.
- 최은수. "성경적인 중보기도사역." 강의안. 예수님의 중보기도사역학교, 2000.
- 최정환. *대구의 정신을 찾기 위한 대구향토사 조사연구*. 대구: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 향토사교육연구회. *대구 역사 기행*. 대구: 나랏말, 1996.
- \_\_\_\_\_. *새로 쓴 대구 역사 기행*. 대구: 영한, 2002.
- 홍성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서울: 예수전도단, 2000.

## 2. 번역서적

- Avles, Elizabeth, Tommi Femrite, & Karen Kaufman. *12가지 유형으로 본 전략적 중보기도자 (Intercessor)*. 전용복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 Beckett, Bob. *지역을 바꾸는 기도 (Commitment to Conquer)*. 예수전도단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 Bloesch, Donald G. *기도의 신학 (The Struggle of Prayer)*. 오성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Bounds, E. M. *기도 I (E. M. Bounds on Prayer I)*. 김원주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 \_\_\_\_\_. *기도 II (E. M. Bounds on Prayer II)*. 김원주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 Calvin, John.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vol. 9.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계간행사, 1979.

- Capps, Charles.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 (Releasing the Ability of God through Prayer)*. 최기운 역. 서울: 베다니, 1998.
- Dawson, John.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Taking Our Cities for God)*. 유재국 역. 개정 2판. 서울: 예수전도단, 2005.
- Dawson, Joy. *스릴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 (Intercession, Thrilling and Fulfilling)*. 김세라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98.
- Duewel, Wesley L.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 (Might Prevailing Prayer)*. 주상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Foster, Richard. *기도 (Prayer: Finding the Heart's True Home)*. 송준인 역. 서울: 두란노, 1995.
- Guthrie, Donald. *사도들(The Apostles)*. 이상원 역. 서울: 아가페, 1991.
- Haggard, Ted & Hayford, Jack. W. *지역을 바꾸는 교회 (Loving Your City into the Kingdom)*. 예수전도단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 Hanegraaff, Hank. *예수님의 기도 (The Prayer of Jesus)*. 마영혜 역.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하나님의 영적 보호(The Covering)*. 마영혜 역. 서울: 두란노, 2003.
- Houston, James.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The Transforming Friendship)*. 김진우 외 역. 서울: IVP, 1998.
- Hunter, W. Bingham. *프레이어 (Prayer)*. 김원주 역. 서울: 규장, 1998.
- Hyles, Jack. *성령님을 만나세요 (Meet the Holy Spirit)*. 박희원 역. 서울: 두란노, 1996
- Jacobs, Cindy. *대적의 문을 취하라 (Possessing the Gates of the Enemy)*. 고세중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6.
- Kraft, Charles. H.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Behind Enemy Lines)*. 장미숙 역. 서울: 은성, 1995.
- Murray, Andrew. *그리스도의 기도학교: Andrew Murray 기도를 합본 (With Christ in the School of Prayer)*. 김원주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_\_\_\_\_. *곧방에서 만나는 하나님 (The Believer's Daily Renewal)*. 박이경 역.



- 서울: 아가페, 2004.
- \_\_\_\_\_.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The Secret of Believing Prayer)*. 문효미 역. 서울: 아가페, 2004.
- Sheets, Dutch.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김주성 역. 서울: 베다니, 1999.
- Sherman, Dean.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이상신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94.
- \_\_\_\_\_.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이상신 역. 개정 2판. 서울: 예수전도단, 2002.
- Shinness, Ruth. *하늘을 여는 기도 (Unlocking the Heavens)*. 강성덕 역. 서울: 말씀과 만남, 2001.
- Torrey, R. A. *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er)*.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Wagner, C. Peter. *방패기도 (Prayer Shield)*. 명성훈 역. 서울: 서로사랑, 1994.
- \_\_\_\_\_. *제3의 바람 (How to have a Healing Ministry without Making Your Church Sick)*. 정운교 역. 서울: 나눔터, 1994.
- \_\_\_\_\_. *영적 전투들 통한 교회 성장 (Confronting the Power)*. 나겸일 역. 서울: 서로사랑, 1996.
- \_\_\_\_\_. *기도는 전투다 (Warfare Pray)*. 명성훈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 \_\_\_\_\_. *지역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 (Breaking Strongholds in Your City)*.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 3. 외국서적

- Arnold, Clinton. E. *3 Crucial Questions about Spiritual Warfare*. Grand Rapids: Baker, 1997.
- Bruce, F. F. *The Pauline Circl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5.
- Hiebert, D. Edmond. *Personalities Around Paul*. Chicago: Moody Press, 1973.
- Ryken, Philip. Graham. *When You Pray*. Wheaton: Crossway Books, 2000.

Wagner, C. Peter.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Ventura:  
Regal Books, 1979.

정규남, *Prayer in the Psalms*. Ph. D. di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Vita of  
Sung Soon Par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Bongduk Presbyterian Church, Daegu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5, 1958  
 Marital Status: Married to In Hee Kim  
 with two Children, Hee Jin and Yoo Kyung  
 Home Address: 201-802 Hyosung Apt. 1141,  
 Bongduk 2 Dong, Namgu, Daegu  
 Phones: 053) 472-1804  
 Denomination: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ober 13, 1987

Education:

B. A. Young Nam University, Gyeongbuk, 1983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6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7.

Personal Experience:

1994 to Present Senior Pastor of Bongduk Presbyterian  
 Church, Daegu, Korea